

성(性)관련 제안서 (SEXUALITY OVERTURES)

교의학 연구위원회 (COMMITTEE ON CHURCH DOCTRINE)

인간의 성(性) 이해를 위한 성경적 근거

(BIBLICAL RATIONALES IN RESPONSE TO HUMAN SEXUALITY)

서론

인간의 성(性)을 주제로 그동안 작성·제출되었던 여러 제안서(overtures)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 보면, 이 주제에 대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두 가지 희망 사항이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드러난다. 첫째로, 캐나다 장로교회가 이 주제와 관련해 과거에 취하였던 입장을 고수하기를 바라는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개혁교회의 신앙고백(subordinate standards)을 포함하여 기독교 전통 및 그간 이루어졌던 역사적 합의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존중되는 것이 옳다’고 이해한다. 반면, 결혼에 대해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이 기독교 신앙에 충실함을 유지하면서도, 창조적으로 재구성되기를 바라는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들이 있다. 이들은 ‘동성배우자 간의 언약적 관계(covenanted same sex relationships)’를 인정하여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결혼의 의미를 이해하는 방도가 수정되기를 바라고 있다.

그런데 이렇듯 뚜렷하게 대조되는 두 대척점 사이에, 이 두 지점과는 구분되는 많은 다른 견해 및 선택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을 받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 해당주제와 연관된 여러 질문의 복잡하고 난해한 특성 및, 이 주제와 관련해 파생되는 여러 의제가 교회의 많은 영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다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뿐만 아니라, 양 대척점에서 자신의 입장을 확고히 주장하는 이들의 격정적 태도로 인해, 어떠한 연구위원회가 구성되어 연구활동을 한다 해도,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전체적으로 ‘지혜롭고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만한 방향점을 제시하는 것은 지극히 어려운 형편이다.

교의학 연구위원회(the Committee on Church Doctrine)는 많은 시간 기도하면서, 연구·협의 활동 및 격의 없는 대화를 지속하였다. 이를 통해, 본 위원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이해하게 되었다: **본 위원회는 결혼에 대하여 이해하는 방식을 유지 혹은 수정하는데 있어 그에 대한 성서적·신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히 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위원회의 위원 중 3명에게는 ‘결혼에 관한 기존 이해를 고수하려는 입장의 성서적 근거가 무엇인지’에 대해 소논문을 작성하게 하였고, 또 다른 3명에게는 ‘동성 결혼에 언약적 신성함이 있다고 확신하는 논거가 무엇인가’에 대한 소논문을 작성하게 하였다. 양 측 모두 “성서 이해와 해석”(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Bible”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 제시된 해석학적 범주(hermeneutical bounds)를 바탕으로 하여 자신들이 연구한 바를 진술하였다. “성서이해와 해석”은 우리 개혁신교회의 신앙고백, 그간의 행동강령 및 발표기록물집(Acts&Previous Pceedings)을 통해 축적된 자료 및 개혁신교회의 전체적 전통에 기반한 주요 신학적 특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담고 있다. (A&P, 2016 p265~78) 이러한 방식으로 각 분과 위원회(subcommittee)에서 소논문을 작성한 후에,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이에 대한 일종의 편집 작업을 수행하였다. 기존의 입장을 찬성하는 위원들, 그 반대편의 견해를 지지하는 위원들 모두 상대편 견해에 대한 기본적 존중을 바탕으로, 서로에게 건설적 비판점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방식을 거치며, 원 저자들이 여기 제시된 최종적 연구 결과를 담은 자신들의 보고서를 직접 퇴고(推敲)하였다. 따라서 각 문서는 그 해당 견해를 지지하는 이들에 의해 그 초고가 작성되었으며, 같은 이해를 공유하는 이들을 통해 내용이 심화되었고, 서로의 차이점을 존중하는 건설적 비판을 통해 가다듬어졌다는 사실을 밝히는 바이다.

교의학 연구위원회는 지금까지 과거의 총회에서 본 위원회를 통해 제시된 권고 사항 즉 교회의 하나됨(the unity of the church)을 상실하지 않으며 진리를 추구해야 할 책임을 지속적으로 상기하였다. 본 위원회에 의해 제시된 위의 과정은 내년도 총회가 열리기 전까지 일 년 동안 캐나다 장로교회가 본받을 모범적 사례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 공동 연구 과정을 통해 우리는 인간의 성(性)에 대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바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에 이를 수 있다. 나와 의견을 같이하는 이들, 또한 달리하는 이들과의 대화를 하는 주 목적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진실한 이해에 함께 이르는 것이다. 은혜가 충만한 대화라는 것은 대화 참여자의 기존 견해에 예외 없이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형제 자매된 이들과 보다 더 깊은 만남과 나눔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전통적 입장을 열렬히 옹호하는 주장, LGBTQ 공동체 내에서 전하고자 하는

증언등 다양한 목소리가 함께 청취되어야 한다. 아직 다 듣지 못한 여러 이야기가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여기 제시되는 보고서는 삶의 현실과 유리된 상아탑에서 쓰여진 것이 아니다. 이 보고서가 완성되기까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는 다양한 형태로 교단적 참여의 노력을 기울였다.

본 보고서에서는 서로 분명히 구분되는 두 가지 성경 해석 방식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 두 가지 방식만이 유일한 성경해석방법이라는 함의(含意)를 두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캐나다 장로교회 구성원들이 여기 제시되는 여러 신학적 성경적 근거를 자세히 읽으며 검토할 때, 그 중 많은 독자들의 동의를 얻는 것들이 있는 반면, 중요성에서 밀려나는 것들도 있을 것이다. 이 두 소논문이 캐나다 장로교회의 숙고 및 분별 작업과정의 새로운 걸음을 어떻게 인도할 수 있을지 제시하는(p.XXX 참조)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할 곳은?”(Where From Here)이라는 제목의 짧은 글을 여기 먼저 실는다. 이는 두 소논문에 대한 일종의 서문 역할을 하는 글이라 할 수 있다. 이제부터 독자들이 보게 될 논의의 내용이 단순하지 않고 해당 논의의 성격상 복잡할 수 밖에 없다는 점에 대해 양해를 구하는 바이다.

모든 독자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이 되게 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 하였으나 여기서 토의되는 내용의 깊이가 전달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의 노력이 요구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할 곳은?”라는 서문을 통해 각 교회와 당회, 노회와 대회 및 캐나다 장로교회의 여러 다양한 영역에 모인 사람들이 이제 제시될 자료들을 기도하며 분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해하게 될 것이다.

우리의 역할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어떠한 결정을 내려야 하는지 그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입장이 다수이며 혹은 소수인지, 어떠한 측의 진술이 결국 우위를 점하게 될지에 대해 말하려는 의도가 우리에게는 없다. 현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경말씀에 대해 진지한 대화를 함께 나누는 것이라 우리는 이해하고 있다. 이미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니 이 논의를 종결짓는 결론이 속히 내려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 될 수 있을 것이나, 우리가 지속한 소통의 과정을 통해 밝혀진 캐나다 장로교회의 전체적 의견은 그렇지 않다.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 자체가 교회를 평가하는 일이니 현 상황에서 대화를 한다는 것은 무의미하며 해롭다는 주장도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다시

언급하지만, 다수의 교회가 ‘우리가 지금은 성령님께서 이 물음에 대한 대화를 나누도록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믿는다’는 의사를 우리에게 명확히 전하였다.

지금 우리는 여기 제시되는 신학적 성경적 근거 및 안내사항을 읽은 후, 각 교회가 말하고 싶은 바를 우리에게 전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준화된 방법을 고안 중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단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알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모인 곳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드러나게 될 것이라 믿고 있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웹사이트에, 여러 다양한 반응을 한데 모으는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링크를 만들어 두겠다. 이렇게 각 교회에서 전하고자 하는 피드백이 본 위원회에 실무적 도움이 되게 하려면 2018년 1월 31일까지 제출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야만, 본 위원회가 내년도 총회의 추가 권고 사항 작성을 위해 필요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회의 각 관련위원회에서는 이러한 일정을 고려하여, 2017년 가을 경에 본 자료에 대해 함께 살펴 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란다.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할 곳은? (WHERE FROM HERE?)

인간의 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한 캐나다 장로교회의 진로모색(進路摸索)

(AN EXPLORATION OF POSSIBLE WAYS FORWARD FOR THE PRESBYTERIAN CHURCH IN CANADA ON QUESTIONS OF HUMAN SEXUALITY)

배경설명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금번 총회에 제시하고자, 바람직한 인간의 성(性)이해를 주제로 하여, 두 편의 신학적이며 성경적인 소논문을 작성하였다. 이 두 편의 글은 각기 해당 물음에 대한 어떠한 신학적 성경적 이해가 가능한지 보여 주고 있으며,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 이러한 중요한 물음에 대해 연구를 위탁받을 때마다 해당 연구사업에 기울이는 본 위원회의 진지한 학문적 작업을 대변해 주고 있기도 하다.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이 두 편의 소논문을 각 당회, 노회, 대회, 및 교회 여러 기구에 발송하여 각 모임에서 함께 그 내용을 숙고하고 토의하며 그에 대한 보고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기를 요청하는 바이다. 이러한 연구 및 토의, 보고에 관한 요청을 본 위원회에서 하는 까닭은 캐나다 장로교회를 구성하는 이들이 함께 나누는 우리의 생각과 이야기가 참으로 풍성해지며 더 깊어지게 하고자 함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깨닫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할 때, 성령님께서 주님의 지혜와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는다.

나아갈 길에 대한 모색 (Moving Forward)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현재 기도하며 지속해 나가는 인간의 성 이해에 관한 토의 과정이 결국 우리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결정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사실 또한 숙지하고 있다. 이는 곧 자신을 LGBTQ에 속한다고 규정하는 사람들에게 대해 그들의 성 정체성을 캐나다 장로교회가 인정하며 전적으로 수용하것이 필요하다는 제안서(overtures)에 대해 어떠한 의견을 최종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인가; 이와는 반대로 캐나다 장로교회는 현재의 기존 가르침의 정당성을 재확인해야 한다는 제안서에 대해서는 어떠한 의견이 모아질 것인가 하는 물음이기도 하다. 이 물음은 성서적이며

신학적인 성격의 물음일 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앞으로 함께 이루어 갈 실천에 관한 물음이기도 하다.

이렇듯 보다 더 실천적인 성격의 여러 사안과 물음에 대한 대화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이제 여기서부터 갈 곳은?”이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였다. 이 글은 캐나다 장로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데 있어 택할 수 있는 세가지 지향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한다. 이 세 개의 지향점에 대한 설명은 우리가 작성한 두 편의 소논문에서 명확히 기술된 신학적 성경적 논점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위에 언급한, 선택 가능한 세 가지 지향점을 총회에 제시함으로써 범 교단적으로 이에 대해 연구하며 토의할 것을 제안하면서, 이와 더불어 두 가지 주의사항을 유념해 주기를 당부한다.

1. 이 세가지 지향점을 제시하는 것으로, 교회가 앞으로 나아갈 길에 대한 모든 가능성이 대변되었다고 할 수 없다. 또한 교회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택해야 한다고 제안하려는 것이 아니다. 단지, 이 세가지 지향점은 가능한 논리적 귀결점을 열거해 보여 주고 있으며, 이를 교회에 제시함으로써 보다 더 구체적이며 실천적인 성격의 여러 물음에 대해 함께 숙고하는 과정을 용이하게 하려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던 대로 이러한 실제적 물음에 대해 교회가 답해야 할 순간이 있을 것임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2. 이 세가지 선택사항은 그 관련된 사안과 질문 전체를 포괄하는 방식으로 제시되지 않는다. 각각의 선택사항에 대해 보다 더 상세히 기술되어야 할 많은 내용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지하고 있다. 이는 이 세 가지 선택사항에 대해 교회가 자세히 생각해보는 동안 여러 반응을 내 보일 수 있도록 여백의 공간을 남겨두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설명을 읽는 동안, “그렇다면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와 다른 경우에 대해서도 고려해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와 같은 여러 물음을 독자들은 묻게 될 터인데, 이는 우리가 모든 독자에게 요청하는 바이며 또한 이러한 질문들을 우리와 공유해 주기를 부탁한다.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 각 교회로부터 피드백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본 위원회에서 응답지(response form)를 제작할 것이다. 캐나다 장로교회 교인 각자, 당회, 노회 및 교회 다른 기구에서 연구한 바를 보고하고자 할 때 이 응답지 양식을 사용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다. 연구 및 토의내용 보고를 위한 절차에 대한 더 자세한 안내는, 총회의 승인하에 캐나다 장로교회 웹사이트에 게재될 것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더 깊은 차원의 이해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위한 지속적인 대화가 필요하다고 총회가 결정하는 경우, 관련 정보는 총회 사무실의 서신을 통해 회람될 것이다.

뉘우침과 고백

아래 제시될 세가지 지향점과 관련하여, ‘각각의 지향점은 우리 모두가 뉘우치는 바와 이에 대한 고백을 해 나가는 과정 중의 한 부분이라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강조하고 싶다. 이 세가지 지향점 중 하나를 지지하는 이들은 “1994 년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the 1994 Statement on Human Sexuality)” 6. 23 항에 언급된 ‘회개와 고백에 대한 요청’에 그동안 교회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는 점에 동의할 것이라 생각한다.

주님의 교회는 모두를 위한 환대(歡待)와 보살핌, 사랑과 섬김의 공동체, 교회라는 이름의 참된 가족이 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가 동성애자들을 기피하고, 동성애자들을 위한 사역과 동성애자들이 참여하는 사역을 모두 거부해 버리는 사례가 빈번이 발생하였습니다. 교회는 다 함께 교회 안에 존재하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심과 우리의 위선을 뉘우쳐야 합니다.

아래 제시될 세가지 선택 사항은 모두 ‘1994 년도 성명서에서 보여 주는 뉘우침과 고백의 길을 걷지 못했다는 점을 총회가 시인하도록 한다’는 권고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권고 사항은 금번 총회에서 채택될 것이라 예상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교의학 연구위원회는 일반생활 및 선교총국(Life and Mission Agency)과 함께, 금번 총회에서 ‘경청과 고백의 과정이 시작되게 해야 한다’는 권고 사항을 제시하였음을 다시 밝혀 두고자 한다.

세 가지 지향점(Three Options)

아래 보는 바와 같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관한 세 가지 지향점은 차후(此後) 총회에 제기될 수 있는 권고 사항의 형식으로 제시되어 있다. 교회가 인간의 성 이해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취하는 결정사항은 총회에 권고사항의 방식으로 상정(上程)될 것이므로, 다음 제시되는 세 가지 지향점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각각의 지향점의 내용상 특성에 따라 제시되는 여러 권고사항은 쉽고 분명하게 이해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그에 대한 간단한 서술만으로 충분할 것이다.

지향점 A는 ‘교회에서 인간의 성에 대하여 과거에 가르친 내용이 성경의 교훈 및 우리 개혁신교단 전통의 신학적 유산에 충실한 것’이라는 판단에 기반한다. 이는 ‘교회가 관련된 물음에 대해 역사적으로 가르쳐 왔던 바’를 총회에서 재확인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 지향점을 받아 들이는 선택에는 ‘동성애자들에 대한 혐오적 행위 및 태도에 대한 경청과 고백의 과정을 밟아 가는 것,’ 또한 ‘자신의 성적(性的) 정체성을 LGBTQ라 규정하는 사람들에 대해 사랑어린 환대의 태도를 갖아야 할 필요성’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이 지향점 A의 경우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축복하는 것이나, 동성 결혼을 하고자 하는 연인관계의 두 사람에게 결혼 예식을 준비 및 집례하는 실천과는 전혀 관계가 없다. 또한 다스리는 장로(a ruling elder)나 가르치는 장로(a teaching elder)로 위임받는 것은 미혼이거나 독신인 교인 혹은 이성간의 혼인을 한 기혼자 교인에 국한된다.

지향점 B는 ‘교회에서 인간의 성에 대하여 과거에 가르친 내용이 기독교 공동체 내의 모든 이들을 환대하며 하나됨을 지향하라는 성경전반의 교훈에 기반하지 않았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여기서 모든 이들은 전통적 이성(異性)관계의 틀에서 벗어나는 정체성을 가진 이들을 당연히 포함한다. 이 지향점을 받아 들이는 선택에는 우리 개혁신교회의 신앙 고백 (산 믿음 신앙 고백서[Living Faith]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the Westminster Confession] 참조) 과 연관되어 있는 ‘결혼의 개념’에 대한 재정립이 포함된다. 즉 결혼은 한 남자와 여자의 관계에 한정하지 않고,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로 재정의하는 것이다. 위임에 관한 사항 역시, 기혼자 (이성이나 동성 결혼 여부에 관계 없이) 나 미혼자 모두 위임받을 수 있다. 이 지향점은 또한 ‘교회가 가르치는 내용중 이러한 변화에 동의하지 않는 이들에게 양심과 행동의 자유가 있음을 상정한다. 예를 들어,

가르치는 장로의 경우, 동성 결혼을 집행하도록 강요받지 않을 자유를 지닐 수 있는 것이다.

지향점 C 는 ‘전통적 이해에 근간을 두지 않은 채, 결혼 및 인간의 성에 대해 형성된 근래의 새로운 성경적·신학적 이해는 그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교회는 기존의 가르침을 변경하지 않아야 한다’는 판단에 기반한다. 그러나 동시에, 결혼 및 성과 관련된 질문에 대해 교회내 의견이 나누어져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지향점 C 는 ‘인간의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더 이상 수용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고자한다. 이 지향점을 받아 들이는 선택에는 - 혼인예식(marriage ceremony)과는 구분되는 예전의 한 형태로서- 동성결혼을 축복하는 예식(liturgy)을 창안하는 작업이 포함된다. 당회와 가르치는 장로의 자발적 동의와 의지가 있는 경우, 당회에서 이러한 예식이 사용되도록 의결할 수 있고, 가르치는 장로는 이 예식을 집전할 수 있다. 또한 지향점 C 에서는 ‘동성결혼 관계 내 에 있는 이들이, 위에서 언급된 예식의 축복을 받은 경우,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로 위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둔다.

이 세가지 지향점을 차후 총회에 제기될 수 있는 권고사항의 형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지향점 A

1. 총회는 1994 년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를 ‘우리가 성적이며 관계적인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라는 물음에 관한 성서적이며 신실한 이해를 보여 주는 것이라 재확증하도록 한다.
2. 총회는 “통시적·고전적 문서 (Historical Classical Paper)”가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와 인간의 성에 대한 신실하면서도 새로운 이해를 담지한 문서로 확증하도록 한다.
3. 총회는 ‘신실한 성적 관계는 (지향점 A 가 정의하는 방식의) 결혼관계 내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다스리는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로 위임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성관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증하도록 한다.

4. 총회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1994 년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 및 태도를 누우치며 고백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지향점 B

1. 총회는 “언약적 일부일처 관계인 동성간의 사랑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문서를 인간의 정체성 및 성의 근본적 특성에 대한 신실한 신학적 성서적 문서로 인정하도록 한다.
2. 캐나다 장로교회는 ‘결혼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라고 재정의하며, 우리의 신앙고백적 전통(산 믿음 및 웨스트민서트 신앙 고백)이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수정되도록 한다.
3. 교의학 연구위원회는 생활 및 선교총국(Life and Mission Agency)과 협의하에, 결혼의 의미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로 재정의 되는 변화를 반영하여 캐나다 장로교회의 결혼예식을 개정하도록 한다.
4. 총회는 ‘신실한 성적 관계는 (지향점 B 가 정의하는 방식의) 결혼관계 내에서 형성될 수 있으며,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어떠한 사람이 다스리는 장로나 가르치는 장로로 위임받을 수 있는지 결정할 때, 성관계를 위와 같은 방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여부가 반드시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증하도록 한다.
5. 캐나다 장로교회는 ‘동성의 두 사람사이에는 혼인 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본인의 확고한 신념으로 인해 다스리는 장로와 가르치는 장로가 동성 결혼을 승인하거나 예식 집례를 거부할 때 이들에게 양심 및 행동의 자유를 보장하기로 한다.

6. 총회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1994 년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 및 태도를 누우치며 고백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지향점 C

1. ‘결혼 및 인간의 성에 대해 형성된 근래의 성경적·신학적 주장은 설득력이 부족하므로, 총회에서는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남성과 여성이 연합되는 것이라는 기존의 가르침을 재확증하도록 한다.
2.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LGBTQ 라 규정하는 이들을 그리스도를 본 받는 마음으로 교회공동체 내에 전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믿는 이들이 캐나다 장로교회 내에 있다는 것을 총회는 인정하도록 한다.
3. 총회는 ‘교의학 연구위원회가 신실한 사랑을 서로에게 약속하는 동성관계를 기도하며 축복하는 예식’을 마련하게 하며, 당회 및 목회자들이 원하는 경우 이 예식을 공적인 예배의 형태로 사용하는 결정을 자유롭게 내릴 수 있게 한다
4.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동성의 배우자와 맺어 살아가며, 위의 3 번 권고 사항에서 제시된 축복의 예식에 참여한 남성 및 여성은 가르치는 장로 및 다스리는 장로로 위임받을 수 있게 한다.
5. 총회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1994 년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를 채택하며 ‘동성애자들에 대해 혐오감을 드러내는 행위 및 태도를 누우치며 고백하겠다’고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도록 한다.

연구 및 보고 작업

위에서 언급한 대로, 이 세가지 지향점이 교회가 관련된 물음에 대해 택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또한 각 지향점에 관해 아직 그 답을 찾지 못한 수 많은 질문들이 있다는 것 또한 잊지 않아야 한다. 연구 및 보고작업이 필요한 것은 ‘자신의 성적 정체성을 LGBTQ 라 규정하는 형제자매들에 대한 물음’에 답하기 위해 캐나다 장로교회가 나아갈 길을 찾아 가고자 할 때, 이에 요청되는 지혜와 독창성 및 비판적 성찰을 갖기 위함이다

또한 위에서 언급한대로, 연구 및 보고의 작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의학 연구위원회에서는 ‘각 개인 및 교회의 여러 모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가야할 곳은?”을 읽고 이에 대한 각자의 반응을 알리고자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응답지’를 준비할 것이다. 이는 교회가 함께 나아갈 길에 대해 캐나다 장로교회내에 어떠한 이해가 형성되어 있는지 본 위원회가 내년도 총회에 보고하는 작업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권고사항 4 (채택됨)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통시적 논의(The Historic Argument Concerning Human Sexuality)” 및 “언약적 일부일처 관계인 동성간의 사랑에 대해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무엇인가”라는 제목의 두 문서를 캐나다 장로교회 내 각 기관, 산하 신학교, 개 교회, 당회, 노회, 대회, 각 위원회 및 여러 모임에 추천하고, 연구작업 및 총회를 통해 교의학 연구위원회에 보내질 보고 작업이 2018 년 1 월 31 일까지 완료되도록 한다.

권고사항 5 (채택됨)

“이제 여기서부터 갈 곳은?”이라는 제목의 문서를 캐나다 장로교회 내 각 기관, 산하 신학교, 개 교회, 당회, 노회 대회, 각 위원회 및 여러 모임에 추천하고, 연구작업 및 교의학 연구위원회에 보내질 보고 작업이 2018 년 1 월 31 일까지 완료되도록 한다.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통시적 논의

(THE HISTORIC ARGUMENT CONCERNING HUMAN SEXUALITY)

통시적 논의에 대한 안내 (Introduction to the Historic Argument)

본 소고는 인간의 성에 대한 교회의 통시적 관점에 대해, 신실하면서도 새로운 통찰력을 독자들이 갖게 하고자 한다.

이러한 글을 작성할 때에, 전달하고자 하는 개념에 대해 어떠한 특정용어를 사용할지 결정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성을 주신 것은 결혼을 통해 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연합을 이루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견해를 지칭할 때, “성경적인” 혹은 “사도적인” 관점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본 소고를 작성하는 우리는 위 견해가 성경적이며 사도적이라 동의하지만, 모두가 이러한 의견에 동의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따라서, 본 소고의 제목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기 어려운 용어 대신 “통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하나님의 의도는 결혼이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이 되게 하신 것이라 이해하는 이들이나 이 견해를 거부하는 이들 모두에게 “통시적”이라는 용어는 적절한 것이다.

본 소고는 크게 네 가지 질문의 틀에서 인간의 성에 대한 물음에 답하고자 한다. 연관성 있는 하부주제와 및 살펴 보아야 할 성경 본문에 대한 언급과 더불어 제시되는 네 가지 질문은 다음과 같다.

1.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3. 인간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 3.1. 성경전반에 나타난 결혼신학(Marital Theology)
 - 3.1.1. 창세기 1-2 장
 - 3.1.2. 마가복음 10: 1-12 과 마태복음 19: 1-12
 - 3.1.3. 에베소서 5: 21-33 과 요한계시록 21-22 장
 - 3.2. 자주 인용되는 일곱가지성경 본문들
 - 3.2.1. 창세기 18:16–19:29 과 사사기 19:22–26
 - 3.2.2. 레위기 18:22 과 20:13
 - 3.2.3. 고린도전서 6:9–10 과 디모데 전서 1:8–10
 - 3.2.4. 로마서 1:26-27
 - 3.3. 그 밖의 성경 본문

3.3.1.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

3.3.2. 갈라디아서 3:28-29

3.4. 성경적 지침 요약

4. 결혼 및 독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방법은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 및 주제에 대해 검토한 후, “그 외에 고려사항”이라 이름 붙여진 섹션으로 본 소고는 마무리된다. 이 마지막 부분이 우리가 토의하는 바에 대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본 소고의 접근방식 (Approach)

이 글을 시작하며, 주어진 주제를 우리가 접근하고 다루는데 있어 세가지 전제 및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는 것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A.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접할 수 있는 우선적 방법(the primary way)이다.

첫째, 우리는 “성경이해와 해석”이라는 제목의 소논문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성경을 연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며 접하는 우선적 통로이다”라는 진술에 동의한다. “성경이해와 해석”은 2016 년 총회에 제출되었으며, 교의학 연구회의 권고 사항을 총회에서 받아들여, “캐나다 장로교회 내의 각 교회 및 노회, 또한 여러 모임에서 사용되도록 추천”되었다. (A&P 2016, p. 278, 39) 자연을 관찰하거나 인간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배울 수 있으나, 하나님과 ‘인간의 삶에 대해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에 대해 알 수 있는 우선적 방법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개혁교회로서 받아들인 신앙고백서중 하나이다. 이는 캐나다 장로교회가 믿고, 고백하며 가르치는 바를 서술한 문서 중 하나라는 뜻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 성경 말씀을 이해하고자 할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 1 장은 이를 위한 항시적이면서도 구체적인 혜안을 갖게 한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의 원칙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담긴 그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에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다중적이지 않고, 단일하다) 좀더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을 함께 살펴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끝맺음하시며, 그 선고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신뢰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한 분뿐이십니다.(제 1 장 9, 10 항)

위의 신앙고백서 내용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교훈 중 하나는 ‘성경 어느 특정 부분이 의미하는 바가 불분명해 보일때, 보다 선명하게 관련된 의미를 제시하는 성경내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살펴 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든 논쟁에 있어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또한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이는 단지 성경 말씀을 인용하기만 하면 ‘성경적’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성경이 말하는 바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성경의 각 부분의 내용을 겹겹히 배우며 잘 알고 있어야 할 뿐 아니라, 성경의 특정한 본문을 넘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큰 주제들이 무엇인지, 그 해당본문의 저변에 어떠한 정신이 담겨 있는지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인간의 성에 대한 질문을 물을 때 우리는 성경의 특정본문을 살펴 볼 뿐 아니라, 본문과 직접 연관된 정황(context)을 파악해야 하며, 성경의 전체적 구조 내에서 그 본문의 내용을 보아야 한다. 캐나다의 성서학 교수인 윌리엄 웹(William Webb)은 예수님이 성경을 접근하는 방식에 대해 “성경에 담겨 있는 근본정신을 깊이 묵상하려는 목적을 바탕으로 개별적 구절 및 특정 본문에만 모든 관심이 몰입되는 것을 초월한다”¹ 고 설명하였다. 우리는 이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인식 및 접근방식을 사용하려 한다.

B. 증거력(weight of evidence)에 대한 고려가 있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간의 성을 주제로 한 담론에 참여할 때, 이미 형성된 자신의 견해를 옹호하는데만 힘을 쏟는 학자 내지는 전문가를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어느 의견 또는 견해에나 그 나름의 정당성이 있을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전문적 견해라 불리는 정보에 대해서도, 폭 넓은 자료 조사 및 주제와 관련된 중요한 역사적 시기에 관하여 이루어진 많은 연구 내용을 스스로 검토 한 후 그 정당성을 평가해야 한다.

결혼 및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본적이며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기도와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다. ‘불확실성이 발견되고 명확성이 결여된 상태에서는 총체적 변화를 이루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우리는 이해한다.

C. 우리는 우리 마음의 동기(motive)를 순전하게 하며,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최우선으로 삼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16 세기의 스위스 신학자 하인리히 불링어(Heinrich Bullinger)는 “참된 성경해석이 이루어지는데 있어 필요한 전제는 성경해석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하인리히 불링어의 이러한 이해는 마가복음 12:28-34 에서 예수님께서서 첫째되는 계명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신 가르침에 기인하였다. (이 구절에 대해서는 글의 후반부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불행히도 인류 역사에는, 자신의 이기적인 욕구를 이루려 하거나 타인을 억압하려 할 때 성경을 이용하였던 사람들의 예가 허다하다. 안타깝게도 성경을 오용한 사례들인 것이다. 비록 우리 모두 상하고 깨어진 죄인들이나, 이 글을 함께 작성한 우리는 우리의 기도가 모든 연구 활동에 근간을 이루도록 노력하였다. 또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하나님의 자녀인 모든 사람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더 밝히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함이 이 글을 위한 작업전체를 이끄는 힘이 되게 하려 하였다.

1.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인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물음 중 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전능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라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바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할 때 우리는 주어진 삶을 가장 가치 있게 사는 것이다. 자주 인용되는 잠언 3: 5-6 은 우리에게 이 사실을 일깨운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네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우리의 개혁-장로교회 전통 내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Westminster Shorter Catechism)의 첫번째 문답 내용이 위의 질문과 관련된 해안을 갖게 한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물음에 대해 주어지는 답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

중요한 문답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다르게 표현해 볼 수 있다: “인간의 궁극적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저술가이며 의사인 아툴 가완디 (Atul Gawande)는 “인간으로 살기(*Being Mortal*)” 라는 자신의 저서에서 빌 토마스(Bill Thomas)라는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빌 토마스는 노양원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돌보는 의사였다. 하루는 그가 노양원에서 살아가는 노인들에게 애완동물 몇 마리를 가져다 주었다. 그래서 그 노양원 거주자들이 애완동물을 기르기 시작했는데,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다. “그곳에 살아가던 연로하고 병약한 사람들이 삶을 향해 깨어나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제 말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었다고 생각했던 노인들이 다시 말을 하기 시작했다.” 토마스 의사의 말이다. “주변 세계와 완전히 담을 쌓고 제대로 걸지도 못했던 사람들이 간호사들 있는 곳에 와서는 ‘이 강아지 데리고 산책 좀 다녀올게요.’라고 말하는 것이었다.” 노양원 거주자들은 앵무새 여러 마리를 모두 입양하였고, 이름을 지어 주었다. 사람들 눈에 새로운 생기가 돌기 시작했다.

토마스 의사는 이렇게 말하며 그 노양원에 대한 이야기를 맺는다. “사람들의 사망률이 낮아진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살아갈 이유를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근본적으로 필요한 일인지 말해 주고 있다.” 가완디 의사는 우리 자신보다 큰 삶의 목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 책에서 더 보여 주고 있는데²,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 우리 자신보다 더 큰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시편에서는 이와 동일한 주제를 담은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한다.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시라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시니이다.” (시편 86:9-10)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산상수훈을 전하시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또한 사도바울은 빌립보서 2장에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 하나님

우편에 오르시어 어떻게 사람들이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도록 인도하실지' 전하고 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립보서 2: 9-11)

인간 삶의 기쁨에 대해 알게 하기 위하여, 웨스트민스터 요리문답은 시편 16: 11 을 인용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인생의 계절과 그 안에 수많은 일들에 따라 그 상태가 수시로 변하는 ‘행복감’이 아니다. 성경적 기쁨이란 하나님의 현존하심과 신실하심, 선하심과 공급하심에 대해 시간이 갈수록 더 자라나는 깨달음이자 확신이다. 요한복음 10:10 에서는 예수님께서서 선한 목자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말씀하신다. 양무리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내려 놓으시며, 주님의 현존하시며 신실하시고 선하시며 공급하시는 은혜를 내어주신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생명’ 및 ‘영원한 생명’은 사람이 얼마나 오래도록 살 수 있는지 알게 할 뿐 아니라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알게 한다. 즉 단지 삶의 분량의 증가가 아니라 삶의 질적인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성경에 전체적으로 또한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주제를 검토할 때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완벽한 답은 아니라 해도 ‘인간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 지음 받았다’고 대답할 수 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 드림으로, 시간이 갈수록 더욱 깊어지며 우리를 떠나지 않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다음 질문에서 보게 되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거기에 그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의도 하에 사람이 창조되는 데에는 하나의 목적이 있다. 그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 무엇인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고, 그에 순종하며 참여할 때 비로서 온전히 이해되며 또한 실현된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제자라는 단어는 따르는 사람, 배우는 사람 혹은 연수생(apprentice)을 의미한다. 고대 사회에서 제자는 스승 가까이에서 머무르며, 스승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기 위해 힘을 쏟았다. 동일한 방식으로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우리의 스승되시는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그 가르침을 살아내려 힘을 쏟는다. 기독교의 본질은 무엇을 알려주는데에 있지 않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transformation)를 일으키고자 한다. 다른 무엇보다 그리스도인들은 주 되신 그리스도에 의해 그 존재의 의미가 규정된다. 미국 아틀란타에 위치한 캔들러 신학교(Candler School of Theology)에서 신약학 교수로 일하고 있는 루크 티모디 존슨(Luke Timothy Johnson)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물음은 그리스도가 지금 살아 계신 분인가 그렇지 않은가’라는 물음이라 하였다.³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사역을 하셨을 때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있을 뿐 아니라 살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이곳에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아는 사람들이다. 이러한 지식과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인도하시는 사역을 끊임없이 지속하는 제자들’ 가운데 형성된다.

예수님께서서는 사랑과 신뢰, 믿음과 용서등 많은 것들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지만, 거의 모든 그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혹은 하늘 나라)’를 중심에 두고 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곳(when)’이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when)’를 의미한다. 또한 하나님의 왕도성이 드러나 알려진 곳이었다. 이렇게 남성적이며 지배자적인 이미지가 강조된 용어가 오늘날에도 사용되는 것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거부반응이 있을 수 있겠으나,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해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이야기들을 살펴 보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이 진리와 사랑, 또한 겸손한 섬김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 죄로 인해 깨어지며 손상되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마태복음 1 장 23 절)으로 오셔서 죄 사함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을 뿐 아니라, 온 세상을 구하시고 회복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비전을 친히 알게 하셨다. 우리가 주기도문이라 부르는 기도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의 많은 부분이 잘 요약되어 있다.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서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 기도하셨다. (마태복음 6: 10) 하늘 나라가

새롭게 지음받아 아름답게 회복된 땅으로 임하는, 감격적인 심상(心想)이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에 대해 가르치셨을 뿐 아니라 그 가르침을 친히 구현(具現)하셨다. 요한복음 1: 14 절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때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에 실존한다. 하나님께서 창조자이시며 구원자이시고, 또한 통치자 되심이 드러나 알게 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다. 입으로 할 수 있는 말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서로간의 관계,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와 여러 모임 등에서 성령님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진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새롭게 이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전히 임한 것은 아니다. 죄와 교만과 정의롭지 못한 힘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일그러뜨리고 있는 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온전히 실현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이 깨어진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지속해 나가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성령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 스승되신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그 가르침을 살아가야 한다.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로서 (고린도전서 12 장) 주님의 몸을 세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사람마다 각기 다른 은사를 받았으나 우리 모두는 공통된 목표를 지니고 있다. 그 공통된 목표는 우리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이다.

마가복음 12:28-31 에서, 서기관이라 불리던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두 구약성경구절, 즉 신명기 6:4-5 과 레위기 19:18 을 인용하여 답하신다. 이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 살고자 할 때 우선순위로 삼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대답이다.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신약성경에서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뜻하지 않는다. 신약성경에서 사랑은 ‘충성된 마음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에 충성된 사람이다. 마찬가지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a) 내 이웃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를 소중히 여기며, (b)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내 이웃이 나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c)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이웃이 누리게 되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재확인된 첫째되는 계명은 ‘진리는 한 사람이 믿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가 삶에서 행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제자’라는 단어는 문법적으로 명사(名詞)이다. 그러나 실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제자’라는 말은 동사(動詞)가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의 손이 됨을 뜻하기 때문이다.

3. 인간에게 성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지금까지 논의된 바에 비추어 볼 때, 인간의 성에 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성경이 주는 가르침은 무엇인가? 결국 우리 모두는 관계적 존재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고자 하는 우리에게, 성경은 인간의 성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어떠한 가르침을 주고 있는가?

3.1. 성경 전반에 나타난 결혼신학(Marital Theology)

지난 2000 여년 동안, 결혼에 관해 보편적으로 교회에 확립되었던 다수의 견해는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다 최근에는, 성경에 대한 이러한 통시적 이해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 되었으므로,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 사이에 이루어진다’는 견해가 지속되는데 필요한 성경적·신학적 기초를 밝히고자 한다.

이 어려운 주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먼저 살펴 보려는 성경구절은 동성애의 성적 행위에 대한 토론이 있을 때 흔히 거론되는 일곱가지 본문이 아니다. 이를 의외로 여기는 독자들이 있을 수 있겠으나, 이는 그 일곱가지 본문보다,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 및 독신의 삶(celebrate singleness)에 대한 분명한 증언과 가르침에 우선적 중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

일곱가지 본문 역시 이 주제에 대한 논의에 중요하므로 함께 살펴 볼 것이다. 그러나 남성과 여성 사이의 결혼에 대한 성경의 명확한 증언과 가르침을 거시적이며 우선적인 틀로 삼고서, 그 틀 내에서 그러한 본문들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할 것이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즉 거대한 창조의 서사에서부터, 구속과 새 창조에 이르기까지 성경에 깊게 배어 있는 신학적 이음줄(theological thread)이 있는데 이를 “결혼신학”이라 칭할 수 있다. 결혼신학에는 인간의 성, 성적 차이(sexual difference), 결혼 및 독신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등의 주제가 모두 포함된다. 성경에 드러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전체적 그림에서,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분명히 다른 것 사이의 결합”⁴ 이라는 큰 주제를 구현하는 많은 예들 중 하나이다. 남성과 여성은 의도적으로 다르게 창조되었다. 그러나 둘이 함께 할 때, 남성과 여성의 차이는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결합에 대하여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후에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성경적 가르침은 남성과 여성의 결혼에 대해 특별한 의미를 부여한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이라는 의미구조 내에서 결혼은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sign)이자 상징이다. 성만찬이라고 불리는 주님의 만찬에는 떡과 잔이 사용된다. 성만찬에 있어 떡과 잔은 그 자체의 물질적 특성으로 인식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다른 무엇 즉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기표이자 상징이다. 따라서 우리가 임의로 택한 어떠한 다른 요소로 떡과 잔을 대체하고서 그것을 성만찬이라 부를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같이, 남성과 여성간의 결혼을 남성과 남성간의 결혼, 혹은 여성과 여성간의 결혼으로 대체하고서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의 사역의 의미구조 내에서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이자 상징’으로 동일하게 작용시키려는 것은 가당(可當)하지 않다.

성경의 결혼신학의 개요를 제시하는 요절은 다음과 같다.

창세기 1:26-31: 이 대목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후 생육하며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창조 이야기이다.

창세기 2:18-25: 이 구절에서 남자는 여자가 자신의 참된 반려자이므로, 부모를 떠나 둘이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게 됨을 알게 된다.

마가복음 10:1-12 및 병행구절 마태복음 19:12: 그리스도께서 이혼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며 창세기 1-2 장의 내용을 언급하신다. 마가복음 10:1-12 의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 12 은 고자된 사람의 경우를 깊이 생각하게 하는데, 결혼신학에 있어 독신의 삶이 자리하는 위치에 대해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에베소서 5:21-33: 결혼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유비(analogy)로서 사용되는데, 에베소서 5:21-33 에서도 창세기 2 장이 언급된다.

요한계시록 21-22 장: 하나님의 새 창조가 완성되는 비전이 제시될 때, 교회는 그의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곱게 단장된 신부로 묘사된다.

영국 성공회의 성경신학자인 엔 티 라이트(N. T. Wright)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어떻게 남녀 간의 복된 결혼에 대한 중요한 심상(心想)이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의도를 드러내도록 사용되는지’ 설명한다. “성경의 마지막 부분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이는 그리스도와 그의 교회의 혼인을 상징한다. 이는 성경의 이 부분 저 부분 한 두 구절에서 간헐적으로 작용되는 지엽적 장치가 아니다. 성경전체의 서사가 이 상보적(相補的) 관계와 연관되어 있어, 남성과 여성의 결혼은 ‘창조된 세상의 선함’ 및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일구어내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게 하는 길잡이 내지는 신호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⁵

성경전반에 드러나는 결혼신학에 대한 몇몇 주요본문을 위에 언급하였는데, 이제는 위 본문들에 대하여 더 자세히 탐구해 보고자 한다. 그 후에는, 동성애의 성관계와 관련하여 빈번히 인용되는 일곱가지 본문에 대해 살펴 보겠다.

3.1.1. 창세기 1-2 장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여러 기록자 및 편집자(human authors and editors)의 작업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또한 동시에 성경의 다른 모든 부분과 마찬가지로, 창세기는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이 뜻하는 바에 대하여, 엔 티 라이트는 “이는 성령님이 상호간의 많은 차이가 있는 여러

작자와 편집자 모두를 인도하시어, 그 결과 작성된 책들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가지도록 하신 성경이라는 것을 의미한다”⁶ 라고 하였다.

성령께서 성경의 독특한 권위에 대해
 우리에게 내적 증거를 주셨으니,
 이는 성경 말씀이 가지는 힘의 원천입니다.
 성경이 사람의 손으로 쓰여졌으나,
 세상에 기록된 기타 언어와 달리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5.2)

창세기의 첫 부분은, 인간 삶의 기원은 무엇이며 및 인간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의도하심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보여 주고 있다. 창세기 1 장과 2 장에서 우리는 ‘천지와 인류가 사람의 손에 의해 창조된 것이 아님’을 배우게 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 중요한 구절에서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대로 지음을 받은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관해 답하고자 할 때 가능한 세 가지 설명 방식에 대해 살펴 보겠다.

1. 하나님의 형상을 하나님에 대한 상응성(correspondence)으로 이해하는 견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계시의 말씀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음과 동시에 차이점이 있다는 사실을 모두 의미한다. 우리 자신은 하나님이 아니며 어떠한 신적 존재도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 형상 즉 이미지는 그것이 반영(reflect)하는 것에 대해 유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형상과 그 형상이 반영하는 것은 동일하지 않다.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하거나 하나님의 자리에 피조물을 올려 놓으려는 시도는 모두 성경에서 우상숭배라 가르치고 있다.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특별한 존재가 되도록 창조되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갖는 신학적 의미를 ‘인간 영혼안의 특정한 기능 혹은 능력’(예를 들면 인간 이성이나 의지의 힘)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 자신 안에 우리가 소유하는 어떠한 고정적 형태를 지닌 것을 의미하게 된다. 이러한 이해는 초기교회 교부들 중 한 사람이며 4세기 후반에서 5세기 초반까지 활동하였던 어거스틴의 사상(思想)에서 찾아 볼 수 있다. 그러나 보다 근대에 들어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자신 안에 수동적으로 받은 어떠한 기능이나 능력’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과 갖는 관계에서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반영한다’는 의미로 이해하게 되었다. 스코틀랜드 신학자인 티 에프 토렌스(T.F Torrance)의 신학 사상에서 이러한 예가 발견된다.

16세기에 종교개혁자 존 칼빈(John Calvin)은 이러한 두 가지 견해에 대한 중재를 이미 시도한 바 있다. 칼빈은 하나님의 형상을 인간영혼의 특정한 기능 혹은 능력이라는 이해를 매우 중시하면서도, 이러한 기능 혹은 능력이 창조되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도우려는 특별한 목적때문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만 참된 예배자로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도록 이러한 주어진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은 온전히 또한 능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며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⁷

2. 생물학적 성, 특히 성적인 차이가 하나님의 형상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가 생물학적 성을 부여받은 존재로서 어떻게 살아갈 것이며, 우리가 성적인 존재인 것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하는 물음은 영적인 물음이 된다. 즉 성에 관한 이러한 물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다는 계시적 사실에 맞닿아 있는 것이다. 성서학자인 로버트 그래그넨(Robert Gragnon)은 남성성과 여성성을 각기 “하나님의 형상에 대한 반각적(angled)표현”⁸이라 하였다. 즉 서로 상보적 관계에 있음을 말한 것이다. 따라서 남녀간의 성적인 차이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창세기 2:18) 고 말씀하신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는 남자가 그의 부모를 떠나 자신의 부인과 “한 몸”(창세기 2:24)을 이룰 수 있게 하는 기초가 된다.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생물학적 성이 있다는 것은 성적으로 대조적인 존재에게 다가가, 삶의 모든 영역에서⁹ 상호간의 도움, 이해 및 신뢰가 형성되도록 요청 받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는 많은 결실을 향한 요청이며, 우리의 인간성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더 자라고 깊어지도록, 우상숭배자가 아니라 보다 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받는 요청이다. 우리의 동반자에게 “가까이 기대다”라는 이미지는 “상호보완”보다는 “상호공생”이라는 말로 더 잘 표현될 수 있다.

성경에서는 “본질적 남성성”(essential maleness) 또는 “본질적 여성성”(essential femalness)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상세한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하나님의 피조세계에서 성적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것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하는 우리 안의 기능 혹은 능력만을 뜻하지 않고, 다른 성별의 사람, 하나님의 형상 중 나에게 없는 다른 반각면을 지닌 존재와 관계를 맺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하나님의 형상은 ‘남성과 여성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땅을 정복하도록, 하나님의 창조세계에 대한 소명을 함께 받았음’을 의미한다고 보는 견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드러낼 소명(vocation)을 부여 받았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창조자에 대한 사람의 상응성 즉 유사성때문이다. 이 책무에는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 역시 포함되어 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질문들이 있다. 사람이 남성과 여성으로 창조된 것은 자녀를 낳아 번성하고, 땅을 채워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기 위한 목적때문인가? 아니면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 그 자체가 창조자로서의 하나님 본성에 대한 유사성을 반영하기 때문인가? 성경본문에서는 이에 대해 명확한 답을 찾을 수 없으나, 자녀를 낳아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피조세계를 다스리며 권위를 행사하도록 부여 받은 소명의 한 부분임이 틀림없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신적 통찰(divine insight)에 대해 조직신학자들은 이와 다른 내용의 이해방식에 관심을 보이지만, 성서신학자들의 경우는 이러한 소명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견해를 대체로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인간의 본성이 남자와 여자로 구현되고, 또 이들의 성적인 결합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도록 정해져 있음을 인정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다. 우리가 살고 있는 근대 후반기 이전에는, 자녀를 낳아 기르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서 인간의 성에 대해 이야기한다는 것은 생각하기조차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지난 150 여년 동안, 자녀를 낳아 기르는 언약적 결속이라는 관점에서 성을 바라보기보다는 쾌락과 성적인 충족이라는 관점에서만 인간의 성에 대하여 생각하도록 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변화되었다. 성을 이렇게 이해하는 방식은 다양한 피임도구의 사용으로 인해 더욱 강화되었다.) 여자와 남자가 함께 부부가 되어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형성하는 공동체적 삶에 주어진 소명의 한 부분은, 이들의 성적인 친밀한 결합의 결과인 자녀의 출산을 포함하여 모든 다양한 방식으로 번성해 나가는 것이다.

물론 이는, 결혼하여 자녀를 갖는 것만이 사람의 유일한 소명이라는 뜻은 아니다. 차후 다시 언급하겠는데, 하나님 나라 안에는 독신의 삶에 대한 소명도 있다. 또한 이는 자녀를 출산하지 않거나 출산하지 못하는 혼인 관계는 불완전하다거나 실패한 것이라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니다. 한 남성과 여성의 언약적 관계에서 번성한다는 것은 영적이며 문화적인 의미를 갖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서로간의 성적 친밀함을 통해 갖게 하시는 자녀라는 선물을 포함한다. 한 남성과 여성의 혼인관계가 자녀의 출산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못하는 경우에도, 다른 수 많은 방식으로 그 결혼은 번성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부부간의 성적 차이는 인간에게 주어진 출산의 역할과 그 가능성을 표상한다. 다시 말해, 세상에서 한 사람의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것은 성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사람이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이다. 성적으로 차별화된 몸이 있다는 사실과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 자녀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배제하고서 성적 친밀함에 대하여 말할 수 없듯이, 남성과 여성의 관계라는 맥락에서 출산의 측면은 배제될 수 없다.

창세기 1 장과 2 장의 핵심적인 구절에 대하여 간략히 그러나 동시에 중요한 의미를 담아 나누었던 논의를 돌아 볼 때, 한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은 인간의 타락이전 하나님께서 창조세계내에 의도하신 바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결혼에 있어 변화 내지는 결여 혹은 다른 순열이나 조합의 형태가 나타나게 된 것은 타락한 세상에서 일어난 일이며 하나님의 본래적 의도하심과는 관계가 없다

우리가 함께 보았듯, 사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바는 사람이 하나님과의 유사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며, 하나님께서는 상반된 성을 지닌 남성과 여성의 성적 동반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형상이 확립되게 하셨다. 인간의 다른 여러 기능이나 힘(이성, 의지, 감정 등)이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충만한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적합하게 형성되어 있듯이, 남성과 여성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소명을 함께 이루어 갈 때 서로를 아끼고 격려하며, 서로를 위한 도움이 되어 주도록, 신체적으로 심리적으로 서로에게 알맞은 특성을 특별히 부여 받았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생식 체계는 한 사람의 몸만으로는 완성할 수 없는 유일한 생물학적 체계이다. 인간의 생식체계가 작용하여 그에 주어진 목적 중 하나인 자녀가 출산되기 위해서는 상반된 성을 지닌 두 사람이 필요하다. 위에서 보았듯, 이는 번성하는 삶을 살도록 주어진 소명의 한 부분을 이루는 일이다.

3.1.2. 마가복음 10:1-12 과 마태복음 19:1-12

마가복음 10:1-12 과 그 병행구절인 마태복음 19:1-12 에서는 바리새인이라 불리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다가와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라고 묻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혼은 우리가 이 글에서 다루려는 주제가 아니지만, 두 가지 이유로 이 본문의 이야기를 다루고자 한다. 첫째, 이혼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인지 질문을 받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창세기에서 보여주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근거하여 이 질문에 답하신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마태복음 19:4-6)

예수님은 창세기 1: 27 과 2 장 24 말씀의 권위를, 주어진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지혜의 기초로 삼으시어,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이 이루어지게 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해 말씀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며 어떻게 결혼을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물음에 답하고자 할 때, 바로 이 지속적이며 연속적인 지혜가 그 물음에 대한 답의 기초가 된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서는 이혼에 대해 말씀하신 후, 하나님 나라의 고자에 대하여 말씀을 이어가신다. 이 본문이 중요한 두 번째 이유이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마태복음 19:12)

이 말씀이 어떠한 이유로 우리 연구에 중요한지 언급하기 전에, 고자란 거세된 사람을 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 본문에서 거세라는 단어가 실제 신체적으로 생식 기능을 잃게 된 상태를 뜻하는지 아니면 비유적 거세를 뜻하는지는 분명히 알 수 없다. 이러한 해석상의 모호함을 염두에 두며, 각각의 경우 어떠한 사람이 무슨 이유로 고자로 간주될 수 있었는지 추측해 보고자 한다.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는 생식 기관이 결여된 채 태어난 사람들이나 혹은 남성과 여성이라는 일반적 성구분의 범주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사람이 만든 고자”는 타인에 의해 거세를 당했거나, 혹은 질병으로 성적 기능을 상실한 사람들을 의미할 수 있다. 위의 두 경우 모두, 예수님께서서는 당시의 사회문화적 기준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던 바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인다.

세번째로 언급되는 것은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이다. . 이것이 실제 신체적 거세를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의 거세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그런데 이 두 경우 모두 (성적 관계와 결혼 생활을 피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독신의 삶을 살기로 결심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이 경우는 독신의 삶이 예수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을 위한 윤리적 강령에 더 잘 부합한다고 믿거나, 독신의 삶을 택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일하는 사역을 보다 더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신념이 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예수님 당시에 고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영예롭지 않은 일이었는데, 이사야 56:3-5 에서는 고자에 대해 대단히 긍정적으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이사야 56:4-5)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12 에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이해하고자 할때, 이와 같은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또한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가르침으로 여기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께서 세 가지 유형의 고자에 대해 말씀하신다. 첫번째와 두번째 유형의 고자가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 추측해 볼 수 있을 뿐이나,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을 하나님의 사역에 전적으로 드리고자 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길을 알리는,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긍정적인 새로운 사고를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라는 표현은 신체적 거세가 아닌 의도적이며 자발적인 독신 생활을 의미하므로, 거의 확실히 이 경우의 거세는 은유적이라 할 수 있다. 앞서,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이라는 구조에서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 내지는 상징이라는 점이 언급 되었는데, 독신의 삶 역시 그러하다. 독신의 삶 또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이라는 구조에서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 내지는 상징이다. 이에 대하여 후에 더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마가복음 10:1-12 과 마태복음 19:1-12 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지향하게 하며, 미혼 내지는 기혼여부에 관계 없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시간은 다가오는 하나님 나라를 가리키는 역할을 한다는 점’을 상기시키므로, 이에 대한 설명을 여기 포함하였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고자된 사람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독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주님을 섬기는 가치있는 삶의 방식으로 새롭게 이해하게 한다. 아래 4 번 항목에서 이 주제에 대한 더 자세한 논의를 보게 될 것이다.

3.1.3.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21-22 장

에베소서 5장과 요한계시록 21- 22 장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사역이라는 구조에서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 내지는 상징으로서 결혼이 특별한 중요성을 갖는다는 것을 가장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결혼은 상반된 성을 지닌 남자와 여자가 두 사람만이 영속적으로 연합되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다. 결혼은 ‘성화(sanctification)되는 삶’과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위에서 이미 밝혔듯이, 결혼의 이러한 소명적 측면은 창세기 1 장에 가장 깊이 있게 제시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7 장에서 사도바울 역시 결혼을 소명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¹⁰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여 드러내는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나 이루는 건강하며 충실한 결혼의 중심자리에는, 우리가 다 설명할 수 없는 신비(神秘)가 있다.¹¹ 독립되어 있던 것들이 연합을 이루며, (요한계시록에서 보여 주는) 새 예루살렘이 생명으로 충만한 살롬, 즉 하나님의 평화라는 특별한 비전에 대해 결혼은 증언한다.

성경에는 결혼신학 이외에,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창조된 피조물의 종이 되셨음’을 보여 주는 또 다른 이야기의 축이 있다. 그리스도 안의 하나님께서는 ‘인간 스스로가 이루어낼 수 없는 은혜’와 ‘흠 없는 아름다움’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내리시고자, 당신을 희생하시며 고통을 받아들여 감내하신다. 에베소서 5 장에 결혼이 언급된 부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질문은 다음과 같다. ‘십자가와 부활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을 우리가 이해하는데에, 특별히 더 도움을 주는 점이 있을까? 우리가 결혼을 이해하는데에, 복음이 어떤 방식으로든 결혼에 대한 이해를 더 확실히 해줄 수 있는가? 또한 어려운 일들이 닥칠 때에도, 복음이 우리의 결혼 생활을 은혜와 확신 가운데 살아 나가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인가?’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예외 없이 모두 “그렇다”이다. 이에 대해 함께 살펴 보도록 하자.

서로에 대한 순종: 건강하며 충실한 결혼생활을 위한 비결

에베소서는 에베소라는 한 고대도시에서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쓰여진 서신이다. 에베소서는 소아시아(Asian Minor)의 에게해 해안가(the Aegean coast)에 위치한 한 도시였다. 에베소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포함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가지는 여러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하는가 등의 여러 주제를 다룬다.

에베소서 5 장에서는 복음의 메시지가 결혼 생활에 대해 행사하는 영향력은 ‘서로가 서로에게 복종하게 하는 것’이라 알게 한다. 이는 건강하고 충실한 결혼 생활을 위한 비결이라 칭할 수 있을 것이다. 부인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이 있는 22-24 절에 대해 오늘날 우리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다. 실제로 에베소서 5 장은 “남편은 부인의 머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에베소서는 매우 가부장적인 사회를 배경으로 쓰여진 서신이다. 당시 남성의 지배적 힘은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진 반면 여성의 권리는 표현되지 못한 채, 남성의 권리 및 정체성 내로 편입되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며, 21 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는 말씀을 대단히 주의 깊게 보아야 한다. 대칭적이며 상호적인 복종의 의무가 비대칭적으로 묘사되는 해당 문단에서 21 절이 주제 문장이자 문단 전체의 메시지를 요약하는 구절이라 할 수 있다. 부인은 자신이 가정의 지도자가 되고 싶은 바람을 내려 놓으며, 남편이 가정에서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낮춘다. 남편은 자신의 몸과 생명보다 아내를 더욱 소중히 여길 정도로 자신의 배우자의 유익을 구한다. 따라서 결혼을 한 후에도 제약없이 자신에게 편리한 대로 살고 싶은 욕망을 내려 놓게 된다.

본문의 취지는 상대방이 높임과 영예를 얻도록, 자신을 내어 주고 자신이 바라는 것을 포기하는 모범적 사례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의 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친숙하다.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뜻을 비우시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아들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리스도에게 주심으로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실 때, 복음의 원형적 본이 제시된다.

남편이 아내에게 나누어야 할 사랑에 대하여 말한 후, 에베소서 5 장에는 창세기 2: 24 이 인용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32 절에서는 인용된 창세기의 구절에 대한 해설을 들려준다.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해당구절들에서는 결혼을 통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역할을 더욱 잘 감당하게 될 뿐 아니라 결혼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그리스도께서 사랑으로 당신을 내어 주시어 교회와 연합을 이루시고, 교회가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높임을 받게 하시는 복음 안의 역동성’의 상징이 결혼이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이 이러한 복음의 역동성 안에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에 대해 요한계시록 21-22 장을 통하여 더 자세히 살펴 보고자 한다.

요한계시록 21-22 장

성경의 결혼신학과 관련된 계시적 환상이 절정에 이를 때, 교회가 어린양(그리스도)의 신부라 칭함을 받는 이미지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교회는 유일한 신부이나, 아름답게 단장된 거룩한 도시이시기도 하다(21:11, 18-21). 그 안에는 뛰노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가득하고, 세상의 모든 나라의 왕과 백성들이 그 신부를 향해 나아온다(21:22,26). 또한 주님의 현존하심에서 나오는 빛으로 영원히 밝게 빛나며(21:22-23), 하나님의 영이신 생수의 강이 흐른다(22:1-2, 17). 그 문은 낮이나 밤이나 닫히는 일이 없는데(21:25) 이는 그 신부가 하나님의 평안에 안전하게 거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악한 것은 그 어떤 형태로도 그 안에 들어올 수 없다(21:7-8, 27; 22:3, 14-15). 그 문은 열려 있으니 모든 사람들이 다 초대 받았으나 성경 전체의 마지막 부분에서조차 모든 것(혹은 모든 사람들)이 그 안에 다 포함된다는 실재가 제시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의 신부에게 있는 아름다움의 요체인 거룩함을 상하게 하는 죄는 그 안에 들어 올 수 없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함을 받으나, 우리가 그리스도보다 죄에 더 가까이 머무른다면, 진실로 또한 최종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생명에서 제외될 것이다.

복음서에 ‘하늘에는 결혼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 땅에서 결혼한 배우자들이 영원한 세계에서도 동일하게 가정을 이루는 형태로 살아가지 않을 것’임을 알리시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다른 의미에서는, 천국의 모든 것이 어린양과 그의 신부의 혼인에 참여하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21-22 장은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서 결혼이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는다는 점을 깨우쳐 주려 한다. 결혼은 단지 인구증가 및 사회구조 형성이라는 이 세상에서의 실용적 목적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도화 되게 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동성의 중심가치로서 그 역할을 지속하며, ‘상반되는 성을 지닌 두 사람의 결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알게 한다. 또한 두 사람 사이의 차이점은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차이점’을 반영하기도 한다.

성경의 결혼신학에 대해 설명하며, 남성과 여성 간의 결혼은 세상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의도하신 바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사람들은 모두 각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는데, 상반된 특성을 지닌 두 사람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여 드러내는 소명의 한 부분이다. 에베소서에서 결혼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에 대한 유비(analogy)로 사용된다. 요한계시록의 끝 부분에서는 서로 다른 두 대상이 하나님의 새 창조 안에서 함께 나아오는 비전을 볼 수 있는데 즉 교회가 신랑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곱게 단장한 신부로 묘사되는 것이다. 이러한 모든 본문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주의 질서 가운데 성적 차이는 우연한 것이 아님’을 보여 주고 있다. 그 안에는 목적이 있다. 나아가 남녀 간에 이루어지는 결혼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사역의 구조 내에서 더 깊은 실재를 가리키는 기표이며 상징이다.

3.2. 자주 인용되는 일곱가지 성경본문

이제 우리가 살펴 볼 일곱가지 성경본문에서는, 성적 상대를 동성의 사람 가운데서 찾는 것은 인간에게 주어진 성의 관례상 금지된 일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이 본문들에서 명백히 동성애의 성행위가 언급될 때, 예외 없이 모두 부정적이다.

성경에서는 동성애의 성적 관계에 대해 다소 부정적인 정도가 아니라 강한 어조로 그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일부 교회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성경이 동성애의 성행위를 유일한 죄 혹은 가장 극악한 죄로 선별해 낸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그러나 동성애에 대해 명백히 언급하는 일곱가지 성경본문에서는 분명히 단호한 어조가 사용된다. 이 본문들이 ‘동성애의 성행위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멀리 해야 하는 것’이라는 점에서는 모두 공통되는데, 그 메시지의 경중에는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창세기 18:16-19:29 과 사사기 19:22-26 은 소돔과 기브아에 살던 남성 주민들의 죄악된 행위를 보여 주는 두 이야기이다. 그 사람들은 자신들의 마을에 있는 한 집에 유숙하고 있던 남성 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고자 소란을 피운다. 이 두 이야기의 내용과 오늘 우리에게 있는 질문과는 큰 거리차이가 있다. 이 두 이야기에서 벌어지는 일과 서로에게 헌신되며 합의를 전제로 하는 교회 내의 동성 성관계와는 대단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 두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질문과 전혀 성관이 없다는 뜻은 아니지만, 이 두 본문만을 바탕으로 성경이 동성애의 성관계에 대해 부정적인 가르침을 주고 있다고 단정하기에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이러한 점에서 이 두 본문의 중요성은 가장 적다고 할 수 있다.

레위기에는 동성간의 성행위를 금지하는 두 구절이 있는데 레위기 18:22 과 20:13 이다. 이 두 본문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의 관계가 율법을 통해 이루어졌던 시기를 포함하여 구약과 신약성경시대의 먼 거리를 지나 우리에게 전해졌지만, 이 두 구절은 구약 시대의 제사나 사회법에 관한 율법이 아니라 시간적 제한을 넘어 그 타당성이 지속되는 도덕률에 관한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서는 차후에 더 자세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다. P. XXX) 율법의 도덕규범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소홀히 여길 수 없는 주제인 거룩함을 이루어가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확실한 주장의 논거를 사용하고 할 때, 레위기는 관련된 역사적 고찰의 출발점이 되거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집중적으로 다루어지기에 적절하지 않다.

고린도전서 6:9-10 과 디모데전서 1:8-10 에서는 죄악된 행위를 나열하는 긴 목록 중 남창(male prostitutes) 및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들을 언급한다. 이 두 본문 중에서 고린도 전서 6 장이 더욱 중요한데, 6 장을 둘러싼 5 장과 7 장에 사도바울의 성에 대한 교훈이 있으며,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 재림을 기다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결혼 및 독신 생활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 있기 때문이다.

로마서 1: 26-27 및 이 본문 가까이에 있는 구절들은 해당주제와 관련된 가장 많은 분량의 신학적 논의이며 ‘왜 동성애의 성행위가 금지되어야 하는지’ 그 타당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있다. 또한 남성과 남성간의 성관계뿐 아니라 여성과 여성간의 성관계 역시 허용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이 본문의 중요성이 가장 높다.

이러한 전반적 고려사항들을 염두에 두며 각각의 본문을 더 자세히 살펴 보도록 하겠다.

3.2.1. 창세기 18:16–19:29 과 사사기 19:22–26

창세기 18:16–19:29 과 사사기 19:22–26 의 이야기는 이해하기 어려운 성경의 대표적인 예로 분류된다. 소돔과 기브아라는 고대 사회의 마을에 살고 있던 주민들은 한 남성 손님(기브아의 경우) 혹은 남성 손님들(소돔의 경우: 소돔에 찾아온 방문객은 천사들이다)이 머물고 있는 집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 자신들이 마을에 찾아온 손님/손님들과 성관계를 갖고자 (강제적 성관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 집 주인에게 ‘당신 집에 머물고 있는 손님/손님들을 우리에게 넘기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이해하기 매우 어렵고, 마주 대하기 불편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다. 이 두 이야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 오늘날 서로 사랑하며 오랫동안 서로에게 충실한 관계를 맺는 교회공동체 내의 사례와 어떠한 동일성이 있는가? 당연히 동일하지 않다. 그러한 관계를 이러한 이야기들과 동일선 상에 놓고 바라보는 시각은 대단히 불공정하다. 그렇다면 이 두 이야기를 어떠한 방식으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창세기 18 장의 경우, 특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 여러 번 언급된다 (신명기 29:23, 이사야 1:9–10, 이사야 13:19, 예레미야 23:14, 예레미야 49:18; 예레미야 애가 4:6, 에스겔 16:44–58, 아모스 4:11, 스바냐 2:9, 마태복음 10:14–15, 11:23–24, 누가복음 10:10–12; 17:26–30, 베드로후서 2:10, 유다서 7) 소돔은 사악함의 전형(典型)이 되어 버렸다. 소돔에는 한가지 죄악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무겁게 했던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 마음 속의 완악함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교만하고 반항하는 마음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서는 ‘심판의 날에 그들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말씀하신다 (마태복음 10:15 참조)

이사야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비유적으로 소돔과 고모라라 부르며 고발하는 그들의 죄목은 우상숭배와 정의의 상실에 관한 것이다. 에스겔 16:49-50의 말씀이다: “네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 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고대 도시에서 행해지던 관례를 따라, 소돔의 사람들은 과객에게 환대를 베풀 의무가 있었음에도 그들 자신의 만족을 위해 롯의 손님들을 부당하게 학대하려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는 환대의 의무를 저버린 죄였다고 말하는 성경학자들이 있다. 그러나 소돔의 남성 거주자들이 롯의 남자 손님들에게 위해를 가하려 했던 방식은 성적인 것이었다. 창세기 19장의 말씀이다.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네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 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롯이 문 밖의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들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해하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문 밖의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라고 헤매었더라.

(창세기 19:4-11)

데릭 베일리(Derrick Bailey)와 존 보스웰(John Boswell)과 같이 본문의 이야기가 해석된 전통적 방식에 수정을 가하려는 학자들은 ‘소돔의 사람들이 롯의 손님들에게 하려고 했던 것은 성적인 행동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다’고 주장한다. 소돔 사람들이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의 해당되는 동사가 성적인 함의를 갖는 것은 구약성경에서 15 번에 불과하여, 이 동사의 전체 사용 횟수에 비해 낮은 비율이기

때문이다.¹² [한글개역성경에는 ‘상관하다’라고 번역되었으나 NRSV 에서는 동일한 동사가 “Know”라고 번역되었다. 이 글의 영어원문은 성경구절 인용시 NRSV 를 사용하고 있다 - 역자 주] 그러나 우리는 이 문장에서 성적인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고 이해한다. 롯이 손님들 대신에 자신의 두 딸을 내어주려 했을 뿐 아니라, 사실상 병행 구조를 이루는 이야기 (사사기 19 장)에서는 동일한 동사가 성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는 것이 명확하기 때문이다. 성폭행을 저지르는 무리는 레위 사람의 첩(妾)을 사로 잡은 후, 관계하였으며 능욕하였다. [위에서 언급된 동일한 동사가 한글개역성경에는 ‘관계하다’라고 번역되었으나 NRSV 에는 여전히 ‘Know’로 번역되었다 - 역자 주] “우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사사기 19:25)

또한 예수님과 비슷한 시기에 살았던 두 유대인 저술가, 필로(Philo)와 요세프스(Josephus)는 소돔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는 방식으로 해석하였다. 이외에도, 신약 성경의 서신서에서는 소돔의 죄의 성적인 측면을 두 번 언급하는데 그 중 하나가 유다서 7 절이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 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¹³

이 두 이야기에서 롯이 한 일과 사사기 19 장에 나오는 그 여성의 아버지가 한 일은 두말할 나위 없이 개탄스럽다. 이 두 이야기에는 모두 ‘폭력’이 가장 기본적인 주제이다. 단지 우리가 지금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바는 ‘성경의 기록자들은 소돔과 기브아가 범한 죄 가운데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성적인 죄가 있었다’고 이해하였다는 점이다. 신약성경유다서 7 절에서 “음란” 및 “다른 육체를 따라 가는 것” [NRSV 에서는 이 문구를 “unnatural lust”로 번역하였다 - 역자 주]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과, 기원전 2 세기의 성서 밖 자료들이 본문에 대해 말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때¹⁴, 소돔에서 남자가 다른 남자에게 범한 성적인 죄는 유대교와 초기기독교인들이 생각하기에 소돔의 부도덕성이 더욱 분명히 드러나게 하는 일이었다. 그렇지만 이 두 이야기는 상호합의하에 함께 살아가는 교회 내의 동성 관계와는 매우 큰 차이가 나는 정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므로, 이 두 이야기만을 동성애에 대한 교의적 견해의 기초로 삼는 것은 현명한 일이 아니다.

3.2.2. 레위기 18:22 와 20:13

레위기 18:22 의 말씀은 “너는 여자와 동침함 같이 남자와 동침하지 말라 이는 가증한 일이니라”이며 레위기 20:13 은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듯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자기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이다.

창세기와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흔히 모세 5 경(the Law of Moses)이라 불리는 율법서(Torah)의 한 부분이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고대 이스라엘인들이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해하는데 있어 주춧돌의 역할을 하였다. 주님과 교통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삶의 거룩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거룩함은 ‘분리’와 ‘구분’이라는 개념과 연관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많은 다른 나라 사람들 가운데 주님과 언약의 관계를 맺도록 구분되었으므로 그 자체로 거룩하였고, 이스라엘인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 주는 율법의 여러 의무규정과 금지사항들을 통해 자신들은 분리된 사람들이라는 믿음을 나타내었다.

레위기 전반에 걸친 주제는 거룩함이다. 레위기의 후반부 (17 장 – 27 장)는 성결법(the holiness code) 이라고도 불리는데, 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요를 보여주기 때문이다. 레위기와 같은 율법서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명령을 우리에게도 적용하고자 할 때, 오늘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율법의 역할은 무엇인지 우선적으로 묻게 된다. 율법이 하나님과의 언약관계의 전체적 기초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는 당신의 죽음으로 새 언약을 확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이 율법의 중요성을 인정하셨고 레위기 말씀을 자주 인용하셨다. 예를 들어, 마가복음 10:31, 마태복음 22:39 과 누가복음 10:27 에서 예수님께서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레위기 19:18 을 인용하신 것이다.

오늘 현대사회에서 율법을 대하는 사람의 태도로써, 1 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가버이 여기며 이를 해석하지 않았을 것이다. 레위기와 같은 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해석학적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성경의 어느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말씀에 대한 경외심과 레위기에서 전하는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있게 교육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레위기를 이해하려고 한다.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레위기에서 볼 수 있는 세 가지 서로 다른 유형의 율법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한다.

세가지 유형의 율법: 레위기에서 명령하는 바는 오늘날에도 유효한 것인가?

국가법으로서의 율법: 레위기의 율법중에는 고대 이스라엘이 국가의 형태를 갖게 하는 국가법으로 작용하도록 주어진 법률과 형법들이 있었다. 이러한 경우 해당규정은 관련된 사회문화적 맥락을 초월하여 적용되기 어렵다. 예를 들어, 레위기 20:10에서는 간음을 한 자에 대하여 사형을 집행할 것을 명하고 있다.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러한 형벌을 문자 그대로 집행할 의무에 구애받지 않으셨으나, 그러한 형벌에 대한 규정을 비롯하여 구약성경 다른 곳에서도 우리에게 알게 하는 도덕적 가르침 즉 ‘간음은 그릇된 일’이라는 가르침을 여전히 존중하셨다. 이러한 이유로, 간음하다 붙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짓지말라 (요한복음 8:11)”고 말씀하셨다.

제사법으로서의 율법: 레위기에는 또한 제사의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율법 규정들이 있다. 예를 들어,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려 하는 사람이 여성의 월경혈액, 시체, 문둥병 환자등에 몸이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 여성의 월경이 도덕적인 죄로 간주되었던 것은 아니다. 만일 그렇다면 그에 대한 대속을 위해 필요한 제사가 요구되었을 것이다. 레위기에서 월경에 관한 규정사항은 단지 제사의 정결함에 관련된 것이었다. 제사와 관련된 율법의 명령은 유대인들의 성전이 있었던 때에만 그 영향력이 실재했던 제사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유대인들의 성전 건물은 AD 70 년에 파괴되었는데 그 무렵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성전이라는 개념은 비유화(比喩化) 되어 있었다. 그 후 시간이 더 지나, 성전과 연관된 거룩함과 정결함이라는 개념은 남았으나, 그 정결함은 제사의 정결함이 아닌 도덕적 정결함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사도바울은 고린도 전서 6 장에서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에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6:18-19) 라고 말한다.

도덕법으로서의 율법: 도덕법은 국가법과 제사법과 더불어 레위기 율법의 세가지 범주 중 하나이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 신약성경에서 도덕적 관심사의 중심적 가치가 무엇인지 반복적으로 지적하여 이를 상기하게 하는 율법이며, 지금도 지속적으로 실천해야 하는 것이다. 캐나다 장로교회의 개혁신앙 고백서중 하나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도덕법인 율법이 갖는 구속력은 불변합니다. 증거하는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으로 이 같은 의무를 폐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강화하십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6:10 에서 택한 헬라어 단어인 *arsenokoitai* (디모데전서 1:10 참조)는 ‘70 인역(Septuagint)이라 불리는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 내의 레위기에서 동성간의 성행위를 금하는 메세지와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한 의도적 단어 선택으로 보인다. 신약 성경에 다른 곳에서도 구약성경 율법 중 도덕법과 관련된 금기사항을 강조하는 예들이 있다. 신약 성경에서 동성 간의 성행위, 간음, 근친 상관, 일부다처제를 명백히 금지하는 교훈들이 그러한 사례에 속한다. 그러므로 레위기는 법률과 관련된 구약성경의 책이므로, 오늘 우리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이상으로 세가지 형태의 율법에 대해 간략히 알아 보았다. 이를 통해, ‘율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고대사회가 중요시한 거룩함이라는 개념을 가르치는 규정에 속하므로 율법은 간단히 무시될 수 있다’는 견해는 그릇된 것임을 볼 수 있었다. 여러 다양한 삶의 정황에서 서로 다른 특성의 율법이 이스라엘인들에게 주어졌다. 오늘 우리의 상황적 맥락이 고대 이스라엘인들의 그것과 같지 않으므로, 자동적으로 율법의 타당성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다. 개개의 율법 조항 이면에서, 율법을 형성하는 기본적 원칙이 무엇인지 자세히 살펴 보며, 그러한 기본적 원칙이 오늘 우리 삶에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생각해야 한다.

레위기 18:3-4 절의 말씀이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할 때, 우상숭배의 유혹이라는 위험성이 그들 앞에 있었음을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통해 알고 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보여 주시는 삶의

길을 망각하고, 다른 신들에 경배하며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하신 뜻에 어긋나는 성적 죄악이 빈번히 발생하는 주변 문화와 자신들의 신앙이 병합되게 하여버릴 위험성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맥락 가운데 레위기 18 장의 도덕법에 해당되는 규범을 마주 대하고 있다.

레위기 18:22 와 20:13 과 관련된 이러한 점을 인식하며,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는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우리에게 전한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있어 어떤 경우에도 예외 없이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해석의 원칙은 바로 성경 그 자체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의 어느 한 부분에 담긴 그 참되고 온전한 의미가 무엇인지 알고자 할 때에는 (성경 말씀의 의미는 다중적이지 않고, 단일합니다) 좀 더 명백하게 말씀하신 다른 부분들을 함께 살펴 그 의미를 깨달아야 합니다. 신앙과 관련된 모든 논란을 끝맺음하시며, 그 선고하시는 결정을 우리가 신뢰하는 최고의 재판관은 성경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님 한 분뿐입니다.(제 1 장 9, 10 항)

우리가 읽는 성경말씀의 뜻을 보다 더 명확히 알기 위해서는 성경 내의 다른 부분들을 함께 보아야 한다. 남성과 여성간의 성에 관련된 윤리는 성경전체에 걸쳐 계속되며, 신약성경이 보여주듯 고대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는다. 이제 신약성경의 관련 구절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3.2.3. 고린도전서 1 장 6:9-10 과 디모데전서 1:8-10

교회공동체 내의 여러 혼란스러운 어려움을 겪고 있던 고대 고린도시(市)의 교우들에게 사도바울은 그의 서신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거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고린도전서 6:9-11)

후에 다시 언급하겠으나, 9 절 말씀에 대한 번역은 여러 형태로 이루어졌다. 표준영어 번역성경 (The English Standard Version of the Bible)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속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음란한 자도 우상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동성애를 행하는 자도...” 2011 년판 국제 새 번역성경(The New International Version, 2011)에는 동일한 구절이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속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음란한 자도 우상숭배자도 간음하는 자도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도...” 국제 새 번역성경에는 다음과 같은 각주가 있다: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갖는 남자’라는 문구는 동성애의 성행위에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자와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자를 지칭하는 두 헬라어 단어를 번역한 것이다.”

사도바울의 서신서중 디모데가 수신자였던 디모데전서의 1:8-10 말씀이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 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디모데전서

1:8-10)

이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 다른 번역이 있는데 이는 헬라어 원문이 의미하는 바를 오늘날의 독자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번역하려는 현대 번역가들의 고충을 알게 한다. 국제 새 번역성경은 10 절의 *arsenokoitais* 라는 헬라어 단어를 “동성애를 행하는 자”로 번역한다. 그런데 번역에 관한 문제를 더 자세히 검토하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의 맥락을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고린도전서 6:9-11 과 디모데전서 1:8-10 모두 그리스도인들의 교회공동체를 대상으로 쓰여진 신약성경서신서의 한 부분이다. 고린도에서 사역을 감당하였던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공동체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던 여러 질문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하여 고린도서를 기록하였다. 고린도교회에는 성적인 음란함과 관련된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부도덕한 사건이 교회 내에 발생하였고, 고린도는 성적인 자극이 매우 많은 도시였기 때문이다. 이 서신서에서 사도바울은 ‘거룩함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주변 사람들의 기준과는 구분되는 윤리적 의식을 지닌 하나님 나라의 전초기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교회 내의 일부 사람들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를 향해 말하고 있다.

디모데전서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의 지도자와 교인자격에 관련된 물음, 교회공동체 내의 규율 및 그릇된 교의와 도덕적 위선으로 야기되는 위협적인 문제 등이다. 이러한 이유로 디모데전서는 목회서신중 하나로 분류된다.

1세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역 밖에 머무르게 하는 여러 행위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따라서 교회의 교인들을 훈육할 때, 사람들이 삶에서 보이는 행동양식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에 합당한 것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해하게 하며,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바로 잡아야 할 것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돕고자 하였다.¹⁵ 더욱이, 그리스도인들의 공동체는 세상과는 구분되는 메세지 및 삶의 방식에 대한 가르침을 가지고 나아가 세상을 위하여 일하는 선교적 공동체의 소명을 받았다. 이러한 점을 생각해 볼 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주변의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만 그대로 하고, 조금도 달라보이지가 않는다면 그러한 모임이 어떻게, 산위의 동네를 밝히는 빛의 증언을 전할 수 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는 것이 마땅하다.

위와 같은 사실을 고려하며, 사도바울은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예전에는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며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윤리기준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행위를 범하였다해도, ‘세례와 성령을 받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고린도전서 6:11)’는 사실을 상기시킨다. 동성애의 성관계는 그리스도인이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의 범주 내의 한 목록으로 제시되어 있다. 초기 교회는 동성애의 성관계를 유일한 죄 혹은 가장 악한 죄라 칭하며 구분해 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하여 심각하며 분명한 어조의 가르침을 준다.

중요한 두 헬라어 단어: *malakos* 와 *arsenokoitai*

위의 두 본문에서 사용된 헬라어 단어 *malakos* 와 *arsenokoitai* 와 관련된 많은 논의가 있었다. 이 두 헬라어 단어가 오늘날 우리가 볼 수 있는 동성관계 중 ‘서로 사랑하며, 그 관계가 장기적이고 두 사람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헌신을 전제로 이루어지는 동성관계’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전에서 이루어졌던 매매춘 행위 혹은 성인남자가 어린 소년을 자신의 수동적인 성적 상대가 되게 하여 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방식의 남색 관계’ 혹은 ‘당시의 문화 전반에 있었던 어떤 다른 형태의 문란한 성관계’를 의미하는가?

Arsenokoitai 는 기독교가 형성되기 이전에 쓰여진 다른 어느 헬라어 문서에도 등장하지 않는 단어이다. 그러나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 보면, *Arsenokoitai* 가 의미하는 바를 이해할 수 있다. “*Arsen*” 은 “남자들” 혹은 “남성들”을 의미하며, “*koite*”는 성적인 의미가 함축된 “잠자리”를 뜻하여, “잠자리를 함께 하는 남자들”이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구약성경의 헬라어 번역본으로 남성과 남성간의 성관계를 금지하는 레위기 18:22 과 20:13 을 보면, *arsenos* 와 *koiten* 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볼 수 있는데, 사도바울이 이를 보며 응용하여 만든 합성어일 가능성이 있다.

사도바울이 *Arsenokoitai* 라는 단어를 택하여 사용한 것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만일 사도바울이 신전의 매매춘행위나 소년의 성을 착취하는 남색관계 등의 문제를 분명히 지적하고자 했다면, 그러한 행위를 지칭하는 특정 단어들 이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단어들 대신, 사도바울은 남자가 여자와 성적 관계를 갖듯 남자가 남자를 택하여 잠자리를 같이 하여 눕는 행위를 가리키는 보다 광범위한 외연(外延)을 지닌 단어를 사용하였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관계가 지속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동성애의 성관계는 그 어떤 형태라도 모두 금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malakos 는 예를 들어 ‘부드러운 옷감’처럼 부드러운 어떤 것을 의미하는 단어이며, 마태복음 11:8 과 누가복음 7:25 에서 이러한 의미로 사용된 것을 볼 수 있다. 교회의 통시적 견해에 대한 수정을 가하려는 학자들은 *malakos* 가 성적인 의미와 전혀 관련이 없으며, 단지 대단히 수동적인 경향이 있거나 여성적인 태도를 보이는 남성을 지칭하는 단어였을 것이라 주장한다. 그러나 신약성경 표준헬라어사전에서는 이 단어의 두 가지

의미에 대해 1.“부드러워 접촉에 영향을 잘 받는” 2.“동성 성관계에서 수동적인”¹⁶ 이라 정의하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서 분리되게 하는 도덕적 죄악의 목록이 제시되는 본문에서 사도바울 개인이 선호하는 미적 취향에 대해 말하고자 하였을 것이라 생각되지 않는다. 위의 두 본문은 동성애 성관계, 남자와 남자의 성관계의 행태를 통칭하여 그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고 확신하는 바이다.

고린도전서 6 장에는 우리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다. 그릇된 행동을 하는 자들의 목록이 열거된 후 11 절은 “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라는 문구로 시작한다. 위의 목록에 언급된 사람들이 더 이상 이러한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강조되는 것이다. 이 구절이 ‘일단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면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바가 즉각적으로 변화되며 그 일어난 변화가 항상 지속된다’는 의미로 잘못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논의할 필요가 있다. “씻음받아 기다리며 (*Washed and Waiting*)” 의 저자인 웨슬리 힐(Wesley Hill)은 전통적인 기독교 집안에서 자라난 독신 동성애자이다. 믿기 전과 믿은 후를 극적으로 대조하는 그리스도인들의 간증을 듣게 되면, 웨슬리는 ‘그러한 메세지는 자신의 경험에 부합되지 않았다’고 한다. 웨슬리는 기독교 가정에서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고, 어린 나이에 주님을 배워 알게 되었다. 성적으로 문란한 생활은 전혀 하지 않았다. 자신이 동성인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게 되었을 때 그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이 사실에 대해 이야기 했고, ‘이러한 충동을 따라 사는 것은 주님 앞에 옳지 않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남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경험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달라진 것은 웨슬리가 다른 사람들과 또한 자기 자신에게 ‘자신이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낀다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솔직히 시인하는 것이 이제 마음 편하며, 도움이 되는 일이 되었다는 것이다. 웨슬리는 동성애 회복치료(reparative therapies)에 대해 많은 의구심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치료 방법은 “믿기 전과 후”¹⁷ 라는 규범적 사례의 당위성을 철저히 신봉하기 때문이다.

로세리아 버터필드(Rosaria Butterfield)는 오랫동안 여성 동성애자로 살았다. 또한 로세리아는 LGBTQ 공동체를 위한 사회 운동가로 일하였으며, 대학교수로 영문학 및 ‘성과 성별을 반본질적으로 이해하는 퀴어 이론(queer theory)’을 가르쳤다. 로세리아 역시 동성애에 대해 웨슬리와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다. 로세리아는 “동성애에 대한 답은

이성애가 아니라 거룩한 삶이다”¹⁸ 라고 말한다. 로세리아 버터필드는 현재 남성과 결혼해 살고 있는데 기독교 신앙으로 귀의(歸依)하였지만 자신의 동성애적 성향이 사라지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 자신의 동성애 성향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바란다해도 “기도로 동성애가 떠나게 하라 (pray away the gay)”와 같은 문구가 외치는 변화가 실제로 동성애자에게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해 보인다. 캐나다 장로교회는 동성애 회복치료의 타당성을 승인하지 않는다. 그 심리적 악영향은 물론이며, 이는 신학적 강조점을 그릇되게 설정하는 것이다. 뉴욕에 있는 구속자 장로교회(Redeemer Presbyterian Church)의 목회자이며 저술가인 팀 켈러(Tim Keller)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단지 이성애자이기 때문에 다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듯, 동성애자 이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은 아니다. 어떻게 단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지옥에 갈 수 밖에 없다는 말이 성립될 수 있겠는가? 지옥의 영벌을 받게 하는 것은 내 자신이 나를 위한 구원자와 주님이 될 수 있다고 믿으며 ‘스스로 의롭다’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받게 하는 것은 내가 죄인이므로 나의 힘이 아닌 외부의 도움을 힘입어야 함을 깨달아 그리스도와 연결되는 것이다.”¹⁹

3.2.4. 로마서 1:26-27

로마서에서 사도바울은 의로움(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삶)과 불의함(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결여된 채 살아가는 삶)등 여러 중요한 주제를 독자들에게 제시한다.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지 수십여년이 지난 후 기독교 신앙을 바르게 이해하며 그 믿음대로 살고자 힘쓰는 교회공동체를 위해 기록한 서신서이다.

로마서 1장에서 사도바울은 불의한 행위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는데 그 내용은 3장 20 절까지 지속된다. 로마서의 첫 부분에서 사도바울은 불의한 자들이 혹시 하나님을 알고 있다해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불의한 자들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우상숭배를 하며, “부끄러운 욕심”(26 절)에 내버려져 있다.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은 다음과 같다.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 일듯 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로마서 1:26-27) 이 본문에 대하여 작성된 수 많은 글이 있는데, 여기서는 중요한 점 몇가지를 함께 살펴 보고자 한다.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두 남성이 갖는 동성애 관계와 더불어 여성과 여성 간의 동성애에 대한 지적을 가한다. 남자와 여자 모두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역리로 쓴다는 것은 동성 간의 성행위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본문에 대해 그동안 이루어진 토론 및 논쟁의 많은 부분이 이 대목에 그 초점을 두고 있다.

첫째, 이 본문에서 사도바울은 로마제국의 종교의식(우상숭배) 행위 중 종교사원에서 벌어진 매매춘 행위나 성인 남성이 어린 소년과 갖는 성적 관계를 강력히 비판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나 27 절에서 서로(헬라어: *allelous*) 향하여 음욕이 불일듯 한다고 말하는 부분으로 인해 이러한 해석은 그 타당성을 상실한다. 호주의 신학교수이자 목회자인 윌리엄 로더 (William Loader)는 “바울이 사용하는 명확한 어구 특히 ‘서로’는 ‘한 대상이 다른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가하는 착취’가 아니라 ‘상호성’의 의미가 있음을 알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이 해당 부분에서 바울은 상호간의 동의에 이루어지는 성인 사이의 성적 관계를 상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⁰ 적지 않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것과는 달리, 성인 동성 간의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관계의 존재는 1 세기를 포함하여 고대 사회에 널리 알려져 있었다.²¹

둘째, 이 본문은 “과학문명발생 이전시대 (pre-scientific age)”에 살았던 사도바울이 ‘순리’라는 말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물음을 묻게 한다. “우리가 오늘 생물학적 성적 지향에 대해 알고 있는 바를 기준으로 생각해 보면, 특정한 사람들에게는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이 ‘순리’가 아니겠는가?”라는 질문이 제기되고 있다. 존 보스웰(John Boswell)은 “기독교, 사회적 관용 및 동성애(*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라는 제목의 영향력 있는 책을 저술하였는데 바로 이 책에서 그가 제기한 질문이다.²²

사도바울은 자신이 “순리”라는 단어에 담긴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본문의 앞뒤문맥과 사도바울이 선택하는 단어들을 자세히 살펴 보면, 바울이 전반적으로 주장하는 바와 그 근거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

사도바울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18 절)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과 바꾸어 버린 자들(23 절)은 “부끄러운 욕심”(26 절)에 방치됐다고 말한다. 이

대목에서 분명히 바울은 ‘자신이 지목한 사람들을 휘감아 버린 강력한 욕망’에 대해 말하고 있다. 바울이 ‘남자가 마치 여자처럼 수동적 역할을 맡으며 동성과 성관계를 갖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당시의 문화적 견해’에 영향을 받았었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순리”와 “역리”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은 하나님을 창조자로 바르게 인식하는 그의 지식에 근간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이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한 헬라이어 단어 *arsenes* 와 *thelus* 는 구약성경 헬라이어번역본의 창세기 1:27 에 남자와 여자를 지칭하기 위해 사용된 헬라이어 단어와 동일하다. 이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본래적 의도를 암시적인 방법으로 독자들에게 상기하게 하려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순리를 따라 행동하는 것은 창조세계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적 계획을 존중하는 것이다. 이는 참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 뿐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증거하기에 합당한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사도바울은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가 “성향”이라 칭하는 특성에 대해서 바울은 상세한 가르침을 주려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바울은 ‘참된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부합하는 행위는 무엇이고 부합하지 않는 행위는 무엇인가’하는 물음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인간의 성에 대한 토의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어떠한 행위가 그 행위를 유발하는 생물학적 소인(素因) 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행위가 정당하다고 말하는 것은 온당하며 성숙한 발상에 기인한 것이라 보기 어렵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지만, 우리 모두를 에워싼 죄악과 혼란함으로 인해 손상된 인간이기에, 우리는 “본능적으로 느끼며 경험하는 것”들을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가며 또 인도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인간 삶에 작용하는 여러 생물학적 요인들을 고려해 볼 때, ‘인간이 얼마나 복잡한 특성을 지닌 존재인지’ 심각하게 묻고 생각하게 된다. 이를 통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기에 그들 모두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라는 물음에 대해 보다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다. 생물학적 지식만으로는 ‘정당한 행위가 무엇인지’를 결정하는 기반이 되기에 충분하지 못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윌리엄 웹(William Webb)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의지로 통제되지 않는 어떠한 힘이 한 사람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 그 행동의 윤리적 수준에 대한 평가는 그러한 영향력의 존재 유무와 관계없이 이루어진다.”²³

로마서 1:18–3:20 에서 전개되는 내용을 보면, 사도바울은 자신의 수사학적 논증 방식을 통해 ‘자신이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 역시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청자 내지는 독자가 이에 포함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나님을 배격하였고 이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사실을 밝힌다. 자신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18 절)을 통렬히 비판하는 것으로 시작하여 자신은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들까지도 비판의 대상에 포함되게 한다. 널리 알려진 로마서 3 장 23 절의 말씀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의 수신자이자 첫 독자였던 사람들중 이와 같은 선포가 충격이 되었던 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요약하자면, 로마서의 초반부를 통해 우리는 시기, 험담, 부모에 대한 불순종 등 여러 행위와 더불어 남성과 남성 또한 여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동성 간의 성행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관계 없는 행위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러한 행위들은 창조자이신 주님을 바르게 아는 지식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또한 동시에 로마서의 초반부에서 ‘타인을 손쉽게 또한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아야 한다’는 경고의 메세지를 받는다.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으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3:22)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3.3. 그밖의 본문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전반에 드러나는 “결혼신학”과 관련된 본문들 및 동성애와 관련하여 흔히 인용되는 일곱 본문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는 ‘결혼에 대해 교회가 통시적으로 가르친 바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간혹 인용되는 세 본문에 대해서도 살펴 보겠다.

3.3.1.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

사도행전은 1 세기에 초기교회가 어떻게 형성되고 발전되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사도 행전을 통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으며(사도행전 1:9)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셨다는 것(사도행전 2 장) 을 알게 된다. 또한 사도들이 능력가운데 행한 일들에 대해 듣게 되며, 예루살렘과 유대지역을 넘어 복음이 퍼져나갔음을 전하는 중요한 이야기들에 대해 배우게 된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사도행전 11:26)이라 불렀던 것을 사도행전을 읽으며

알게 된다. 사도행전 전반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중 하나는 ‘이제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 안에 포함되었다’는 것이다.

이제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에 대한 분석을 간략히 제시하겠는데,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이 ‘결혼에 대해 교회가 통시적으로 가르친 바에 변화를 가해야 한다’는 주장을 옹호하기 위해 인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 장은 지중해 해변에 위치한 읍바에서 북쪽으로 50 여 킬로미터 떨어진 가이사랴라는 곳에서 시작된다. 사도행전 10 장의 이야기에는 로마의 백부장(로마 군대의 지휘관)이었던 고넬료가 주요인물중 한 사람인데, 그는 환상 중에 ‘사도베드로를 부르러 사람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사자의 음성을 듣고 이에 순종한다. 베드로 역시 환상을 보았는데 ‘그동안 정결하지 않다고 알고 있던 짐승들이 깨끗하게 되었다’고 선언하는 음성을 들었으며, 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당황스러워 하였다. 베드로는 고넬료를 만난 후,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신다”는 것(사도행전 10:35)을 깨닫게 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와 그의 집에 함께 모여 있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 신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

사도행전 10 장의 이 이야기는 사도행전 15 장에서 볼 수 있는 예루살렘 공회(Council of Jerusalem)의 결정사항의 기반이 무엇인지 알게하는 본문들 중 하나이다. 공회에서 초기 교회는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원칙에 동의한다.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교사들로 인해 교회에 혼란스러운 논쟁이 일어났다. 따라서 예루살렘 공회는 이 문제에 대해 심의를 하였다. 이 회의 중에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사도행전 15:19-21)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이방인들에게 필요한 네가지 규제 사항이 결정되었다. 이방인들은 (1) 우상에게 바쳐 더러워진 것 (2)음행 (3) 목졸라 죽인 짐승의 고기 (4) 피를 멀리 해야 한다. 공회는 이러한 지혜로운 결정 사항을 서신과 인편으로 전하였고 이 소식을 전해 들은 사람들은 크게 기뻐하였다.

사도행전 10 장에서 베드로가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것’(사도행전 10:35)을 깨달았던 것과 ‘교회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위에 제시된 네가지 규제사항 이외에) 불필요한 어려움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에 근거하여, 우리도 우리 기존의 사고방식의 변화를 도모하여 동성 간의 결합을 축복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까?

사도행전 9:2 과 신약성경다른 곳에서 그리스도인을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followers of ‘the Way’)이라 칭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도를 따르는 이들은 소속국가 또는 민족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들을 분류하는 범주에 구속받지 않는다. 베드로와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범주를 벗어나게 하는 선명한 비전을 베드로에게 주셨다. 자신이 보았던 환상 중에 베드로는 ‘유대 종교 전통에서 불결하니 먹지 않아야 한다’고 배웠던 짐승들을 잡아 먹으라는 음성을 들었다.²⁴ 이는 ‘하나님께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도 그리스도를 따라 살 수 있는 길을 환히 여신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사도행전 15 장에서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는 결정이 내려진 것을 보여 주는데 이때 음행이 신자들이 피해야 할 것들중 하나로 결정되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성 윤리가 초기교회에서 계속해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주제였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헬라어 원문의 사도행전 15: 20 에서 사용된 음행에 해당하는 단어는 *porneia* 이다. *porneia* 는 국제 새 번역 성경 및 표준영어 번역성경의 사례처럼, “성적 문란”(sexual immorality)으로 번역되는 경우가 많다. 마태복음 19: 9 에는 *porneia* 가 “음행(unchastity)”으로 번역되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 장 9 절에서 음행은 이혼이 타당성을 갖는 유일한 이유가 된다고 말씀하신다. 혼인관계를 벗어나 이루어지는 성적 행위는 그 어떤 것이든 마태복음 19: 9 이 말하는 음행에 해당된다는 이해가 역사적으로 확립되었다.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에서는 초기교회에 나타난 성령의 역사 및 모든 이들에게 동등하게 열려 있는 ‘그리스도 안의 새 언약’이 강조된다. 그러나 사도행전 10 장과 15 장에서 볼 수 있는 이야기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언약의 약속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성경 다른 곳에서 결혼 및 성적 윤리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가 변경되거나 폐지된다고 주장하는 것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

3.3.2. 갈라디아서 3:28-29

갈라디아서는 사도바울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 (갈라디아서 1:2)에 보내고자 기록한 서신서이다.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이란 ‘북중앙 소아시아(north-central Asia Minor)에 있었던 교회들’ 혹은 ‘로마 제국에 속해 있던 갈라디아 지방의 남쪽 끝에 자리잡고 있던 교회들’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 서신서에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성경을법의 완성일 뿐더러, 시기적으로 율법보다 앞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완성이시라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의 후손이며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잘 알려져 있는 대로 갈라디아서에서 사도바울은 이렇게 선포한다. “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28)

사도바울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도덕적으로 성숙한 정도에 따라 혹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킨 정도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힘있게 선포한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고 해서, 유대인이 이방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유대인이었다.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의 경우도 역시, 이방인이 유대인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이방인이었다. 또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종들은 갑자기 혹은 자동적으로 자유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종의 신분이었다. 반대로 자유인들의 경우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종의 신분으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유인으로 살 수 있었다. 마찬가지로 이유로 남자들은 여전히 남성이었으며 여자들은 여전히 여성이었다.

그리스도와 맺는 관계로 인해 받는 영적 지위에 있어서는 모두가 동등하지만, 민족적 특성, 삶의 정황 및 성별의 차이등은 소거된 것이 아니었다. 사도바울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며 이후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나 그로 인해 바울의 유대인으로서 형성되었던 정체성이 소멸되어 버린 것이 아니다. 빌립보서 3 장에서 사도바울은 ‘풍부한 문화적 종교적 지적 유산을 이어 받은 유대인으로서 자신에게 있던 여러 장점을 자랑하지 않는다’고 선언하는 것을 볼 수 있다.²⁵ 그러나 바울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데 도움만 될 수 있다면 자신이 율법을 준수할 수 있었고, 실제로 그렇게 하였다. 종이 자유를 얻는 일에 대해서는 구약성경에서 그에 대한 관련 규정 및 필요요건 등을 볼 수 있는데 신명기 15 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예레미야 34 장에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그러한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의 죄를 꾸짖는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7:21 에서 바울은 신자들에게 자신이 종이거나 자유인이거나 관계 없이 자신의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라고 권면하면서도, 종의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자유를 얻으라고 말한다.

갈라디아서 3:28-29 을 우리의 논의에 포함한 이유는 이 본문이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자유의 권리와 여성의 역할 등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라는 물음에 관해, 성경의 내적 변동을 강조하기 위해 자주 언급되기 때문이다. 자유권과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 진보가 있었으므로, 동성간의 연합을 이해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진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성경을 해석하기 위해 성경을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성경의 여러 부분들을 살펴 볼 때, 인간의 자유권이나 여성의 역할을 이해하는 데 있어 진보가 발견되는 것은 분명하나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그러한 진보에 대한 증거를 찾아 볼 수 없다. 인간의 자유권이나 여성의 역할의 영역에 대해서는 변동의 움직임을 보이는 반면 동성 간의 관계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성 윤리는 느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해지면서, 순결의 중요성 및 ‘성은 남자와 여자 사이의 결혼 관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요구가 강조된다.

갈라디아서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하는 서신서이다. 갈라디아서가 보여 주는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갈라디아서 3:38)라는 사실에 새 힘을 얻는다. 그러나

그 ‘하나됨’으로 ‘성적인 다름’을 포함 사람들 사이에 있는 차이점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사라지지 않는다.

3.4. 성경적 지침 요약

본 소고의 전체 내용에서, 2016 년 총회가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사용하도록 권장한 “성서 이해와 해석”에 제시된 원칙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우리가 현재 처한 상황적 맥락 및 우리가 선호하는 견해의 특성을 인식하면서도, 우리는 성경의 권위와 영감을 존중하였다. 또한 성경말씀이 뜻하는 바에 대해 더 깊은 조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경본문의 문맥을 보다 잘 파악하고자 노력하였다.

이제껏 성경에 대해 함께 살펴 본 바와 같이, 성경의 결혼신학이라는 이름줄은 창조와 구속, 새 창조의 이야기를 모두 관통한다. 이는 남성과 여성이 이루는 결혼 관계가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 얼마나 중요한 위치에 놓여 있는지에 대한 증언이 될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 간의 성적 차이를 구분하지 않는 방식으로 결혼에 대한 이해를 재정립해서는 안된다는 경고이기도 하다.

성경 다른 부분에서 여러 차례 인용되는 창세기의 이야기들은 모두 결혼의 기초는 남자와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는 관계라는 인식을 공유한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에 이르는 유형적 특성은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연합의 신비로움을 반영하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에 그려진 하나님의 새 창조로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나는 순간을 예견하게 한다. 반면 동성간의 성 관계에 대한 성경의 언급은 모두 부정적이다. 성경에서 동성간의 성적 관계에 대한 언급이 기록되었던 시간 및 공간적 배경은 ‘동성간이 성적으로 관계를 갖는다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널리 잘 알려진 때와 장소’였다. 동성간의 성적 결합을 옹호하는 이들의 주장과는 달리, 성경에서 언급하는 동성 관계는 ‘성인남성과 어린 소년의 관계’, ‘종교 사원에서 행해지던 매매춘 행위’, 또는 ‘폭력이 수반되어 형성되는 성적 관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합의하에 이루어지는 성인 동성 간의 관계’까지 포함하는 것이다.

노예제도나 여성의 역할 등의 주제에 대해서는, ‘자유를 누릴 인권의 증대’ ‘여성이 발휘하는 지도력의 신장’ 등에 대한 성경자체 내의 발전적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이러한 변화가 발생한 것을 성경에서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성경의 여러 본문을 통해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성 윤리는 느슨해지기보다는 오히려 더 엄격해진 것을 알게 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남자와 여자라는 성적인 차이가 있게 하신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결혼이 이루는 구조에 알맞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성적인 차이는 결혼의 구조에 있어 우연적인 요소가 아니며, 창조와 구속 또한 새 창조의 서사에 있어 결혼이라는 구조는 우연적인 것이 아니다. 결혼은 이 거대한 서사의 심상(心想)이 되도록 지명받은 것이다.

본 소고의 앞부분에서 언급했듯, 역사적으로 지속된 ‘결혼 및 인간의 성을 이해하는 방식’에 전폭적인 변화가 일어나기까지는 많은 기도와 연구 및 합의가 필요하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발견되고 명확성은 제시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총체적 변화를 이루려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이해한다. 우리가 기도하며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한 바를 기준으로 판단해 볼 때 현재 캐나다 장로교회가 역사적으로 지속된 결혼이해 방식을 변경해야 할 합당한 근거가 없다. 결혼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루어지게 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것이 결혼에 대한 성경적 가르침이며, 교회는 그리스도를 성실히 따르는 마음으로 이 성경적 기초에 변화를 가하려 해서는 안된다고 믿는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며 또 해야 할 일은 다음과 같다.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을 이루기 위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이다. 예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늘 함께 계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믿으며 우리는 그 소중한 명령을 지켜 행한다.

4. 결혼 및 독신에 대한 성경적 이해방법은 무엇인가?

결혼

캐나다 장로교회의 신앙고백서중 하나인 산 믿음의 8.2.3 항에는, 결혼을 성경적으로 이해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명확한 설명이 있다.

그리스도인의 결혼은 그리스도 안에서 결합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가 됩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평생동안 신실하게 서로를 사랑하며 돕겠다는 약속이며 헌신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간음의 죄를 용납하지 않습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를 지킬 때 사랑이 깊어갑니다.

서로에 대한 신의를 저버리는 행위는 결혼으로 결합된 관계를 파괴합니다.

결혼 안에서 성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새 생명이 창조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한 기쁨과 위안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 결혼하는 것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이루어진 일이다. 인간의 죄로 얼룩지게 되었어도, 서로 순종하며 함께 하는 결혼은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는 표식이며, 요한계시록 21-22 장에서 보여주는 하늘과 땅의 최종적 합일이 도래함을 알리는 신호의 역할을 한다.

독신의 삶

본 소고의 대부분은 보는 바와 같이 결혼 및 동성 간의 결합 관계에 대한 것이었으나, 독신에 대하여서도 앞서 언급한 바 있다.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과 더불어, 성경에는 독신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진술이 함께 있다. 결혼과 독신의 삶은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로 나란히 놓인 두 길과 같다. 또한 이 양자 모두 하나님의 서사가 우리를 통해 새로이 태어나게 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의 방식이다. 산 믿음의 항목 8.2.2.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결혼을 한 기혼자, 독신으로 살아가는 미혼자의 삶에 공히 실현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결혼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아닙니다. 충만한 삶은 기혼자와 독신자를 포함한 모든 이들에게 주어집니다.” 이 항목이 지혜롭게 서술하고 있는 바에 우리는 전적으로 공감한다.

구약성경에는 독신의 삶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들이 있다. 창세기에서 ‘사람이 독신으로 있는 것, 홀로 사는 것’은 선한 창조세계에 대하여

처음으로 ‘좋지 않다’는 말이 사용된 연유였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창세기 2:18) 이러한 좋지 않은 상태는 성적 반려자가 창조 됨으로 극복된다. 이로써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결혼의 근간인 ‘둘이 한 몸이 되는 결합’이 이루어진다

신약성경에는 ‘장차 하늘에서는 결혼이라는 것이 없을 것이며 우리 모두 독신으로 천사와 같을 것’(마태복음 22:30)이라 말한다. 마태복음 19 장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한 바 있듯, 예수님께서서는 창세기 1-2 장을 배경으로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말씀하신 후 곧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된 자”(마태복음 19:12)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이 두 삶의 길은 서로 우열을 가릴 수 없이 모두 소중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게 하신 것이다. 신약 성경은 ‘현 세대(present age)에 ‘옛 창조의 질서(the old created order)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나, 동시에 현 세대에는 하나님의 새 창조 즉 하나님의 나라의 표식(“signposts” of the new creation/kingdom of God)이 이미 그 안에 침노하여 드러나 있다’는 신학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새 창조의 어떠함을 앞서 가 알리는 전령사와 같은 역할을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린도전서 7:25-35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독신의 삶을 택함으로 선교와 사역을 위해 자유로이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더욱 전심을 다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공동체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

누가복음 20:27-40 과 마태복음 22:23-33 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결혼은 이 땅에서의 현재 삶과 관련되어 있다. 장차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신비로운 혼인에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하게 되지만, 하늘의 삶에서 우리는 독신으로 살아 갈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처럼 모두가 결혼을 하는 것이 당연한 때 (창조 이야기 및 구약성경의 여타 부분들)에서 모두가 독신이 되는 때(하늘에서의 궁극적 미래)로 이동해 가는 경로가 그려져 있다. 현재 우리는 이 두 시대의 중간기에 살아가고 있다. 결혼은 선택하며 독신의 삶 역시 그러하다. 이 둘은 서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실재를 드러내는 표식이다.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독신의 은사에 대하여 말한다. 그런데 이 은사라는 개념 (고린도 전서 7:7 에 독신이 은사의 개념으로 언급되어 있다)²⁶ 을 동성 간의 연합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자 한 이들이 있다. 독신으로 살아가도록 은사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독신의 삶을 교회가 강요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동성애에 적용하는 것인데,²⁷ 이는 은사의

개념을 “어떠한 것에 대해 가지고 있는 적합성 또는 이를 위해 받은 특별한 은혜” 라 이해하는 것이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7 장에서 사도바울은 ‘결혼생활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는 은사가 있듯, 독신으로 살기 때문에 받는 은사가 있다’는 점을 전하려 한다고 볼 수도 있다. 독신의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특별한 적합성이라는 것이 있다고 생각해 보자. 그러한 가정 하에, 설령 어느 독신자가 이성(異性)에게 매력을 느끼게 되어 자신이 독신의 은사를 받았다고 확신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해도, 그가 간음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도우는 풍족한 은혜가 있다는 것 역시 의심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 이는 이성의 배우자와 결혼하였으나 자신이 일부일처의 결혼생활에 적합하지 않다고 여기는 사람의 사례가 ‘음란의 죄를 범하지 않도록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는 풍족한 은혜를 의심하는 근거’가 될 수 없는 것과 같다.

신약 성경에 기록된 성적인 죄를 범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특별한 은총” 내지는 특수한 은사를 우리에게 주셔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는 늘 우리에게 족하다. 또한 우리가 성적인 유혹에 굴복하였다 해도 진심으로 뉘우치며 그에 대한 용서를 구한다면 우리의 허물을 덮는 용서의 은혜 역시 십자가에 늘 풍족하다.

독신의 삶에 대해 논의될 수 있는 바는 이외에도 대단히 많이 있으나, 본 소고에서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이 주제에 대해 마무리하고자 한다: 독신의 삶이 특별한 은총 내지는 특수한 적합성이 부여된 은사인지 그렇지 않은지 그 여부와 관계 없이, 독신의 삶은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은사이자 부르심이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이는 결혼하여 배우자와 살아가는 삶이 한 사람이 받아들이는 은사이자 부르심이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이다. 이들은 서로 구분되는 하나님의 실재를 드러내는 표지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며 회복 되는 새 창조의 세계에서 양자 모두 소중한 가치를 갖는다.

그 밖의 고려사항들

지금까지 우리는 성경전반에 나타난 결혼신학, 동성애와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일곱가지본문, 해당주제와 관련하여 자주 토의되는 그 밖의 성경본문들 및 독신의 삶 등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제는 이러한 논의를 위해 성경본문들을 연구하는 동안 추가적으로 제기되었던 몇가지 고려사항들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의 고려사항들 역시 결혼 및 인간의 성에 대해 지속되는 현재 토의의 과정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된다.

A. 위선의 문제

그리스도인들인 우리가 인간의 성에 대한 이해를 통시적인 관점으로 바라볼 때, 1994 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에서 ‘본 소고가 제시하는 것과 같은 명확한 신학적 가르침에 의거하여 동성애에 대한 혐오를 극복하는 관계적 공동체를 육성 및 활성화 해야한다’고 요청한 바에 캐나다 장로교회가 부응하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다. “성 정체성에 대해서는 서로 묻지도 말고 말을 꺼내지 말라”는 현실적 원칙 하에 LGBTQ 라고 자신을 규정하는 사람들을 맞이한 교회들이 있다. 또한 현재까지 고수된 캐나다 장로교회의 입장에 반하여, LGBTQ 공동체에 대한 전적인 긍정의 입장을 그 기본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도 있다.

또한 교회는 이성 간의 성 윤리에 대해 어떻게 가르치고 있으며 이를 어떻게 삶으로 살아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이에 대해 교회가 그동안 보였던 위선을 인정해야 한다. 윌리엄 웹 (William Webb)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교회공동체가 이성 간의 성행위에 대한 자신의 윤리적 기준을 삶으로 구현하지 못하면서, 동성 간의 성행위에 대해서는 높은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교회가 이성 간의 성윤리를 진실로 실천으로 구현해 내지 못한다면, 동성 간의 성윤리에 대해 우리가 전해야 할 메시지를 우리 스스로 허물어 뜨리는 셈이다.”²⁸

B. 증오 및 동성애 혐오증

가장 극단적인 경우, 동성애 혐오증은 증오 범죄로 이어진다. 1998 년 와이오밍주 라라미시(Laramie, Wyoming)에서 매튜 셰파드 (Matthew Shepard)의 생명을 앗아갔던 사건이 그러한 사례이다. 매튜는 두 사람에게 고문과 심한 폭력을 당한 후, 울타리에 묶여진 상태로 유기되었으며 일주일 후 사망하였다. 또한 작년(2016 년) 6 월에 발생하였던 올랜도 나이트클럽의 총기난사사건 역시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 총기사건으로 49 명의 동성애자 청년들이 사망하였고 53 명이 부상을 당하였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잔혹한 총기난사사건이었다. 2013 년 캐나다 노바스코시아주 뉴 글래스고우(New Glasgow, Nova Scotia)에서 발생한 사건은 다음과 같다. 당시 27 세 였던 스캇 존스(Scott Johns)는 뉴 글래스고우에 위치한 한 캐나다 장로교회에서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고 있었다. 동성애자로서의 스캇의 정체성은 마을 내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었는데, 그가 뉴 글래스고 시내의 한 주점 가까이 있을 때 흥기에 찢리는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그의 하반신이 마비되는 증상을 입었다. 스캇이 오르간 연주자로 일하였던 교회의 교인들은, ‘1994 년 인간의 성 이해에 대한 성명서’의 실현을 그간 사역의 중점으로 삼고 있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를 위해 기금을 모금하였고, 성가대 자리의 구조를 변경하여 스캇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운 상태에서도 오르간으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스캇이 그 사건으로 인한 고통과 충격을 겪고, 가해자에 대한 재판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스캇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인들이 함께 힘이 되어 주었다. 이는 인간의 추악함 사이에 드러난 복음의 아름다운 빛이었다고 할 것이다. 칼빈 신학교 (Calvin College)의 교목(chaplain)인 메리 헐스트 (Mary Hulst)는 많은 가정에서 동성애와 관련하여 겪게되는 고통에 대해 통계상 정보를 알려 주는데, LGBTQ 에 속하는 청소년들이 자신을 가족으로 받아 들이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나는 경우, 이들의 자살률은 자신을 거부하지 않는 가정에서 자라난 LGBTQ 청소년들의 자살률에 비해 여덟배 이상 더 높다고 한다.²⁹

그리스도의 교회 내에 동성애자들에 대한 증오나 혐오증이 자리 잡게 해서는 안된다. 동성애 혐오증은 동성인 사람들에게 성적인 매력을 느끼는 이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증오와 두려움의 대상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 앞서 밝혔듯,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의 개념은 충성스러운 신실한 마음이라는 의미에 가깝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역할을 함께 맡은 다른 이들과 본질적으로 연관되어 있으며, 서로 간의 견해 차이가 있을 때에도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은혜가 드러나도록 힘써야 한다. 동성애에 대해 갖는 견해 차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이 사실은 조금도 다르지 않다.

또한 현재 일반적으로 교회공동체 내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을 신앙의 적(敵) 혹은 비성경적이라 이름해 버리는데, 그렇지만 우리는 상대방의 견해에 찬성하지 않으면서도 서로 사랑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갖는 의미는 말할 수 없이 크다. 캘리포니아 새들백 교회(Saddleback Church)의 릭 워렌(Rick

Warren) 목사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우리를 둘러싼 문화 곳곳에 두 가지 큰 잘못된 생각이 스며 들어 있습니다. 첫째, 나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이들을 두려워하거나 증오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둘째,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과 그 사람의 믿음, 행동양식 등 모든 것에 동의하는 것을 단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이 둘 모두 대단히 오도되어 버린 생각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의 표현이 ‘내가 믿고 있는 바를 그를 위해 내어 버리는 것’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³⁰ 이는 긴장감이 고조된 사회문화적 정황에 접근하는데 있어 도움이 되는 조언이다.

C. 정체성

마음의 습관(*Habits of the Heart*)이라는 제목의 자신의 저서에서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는 서구근대사회에 들어 ‘정체성을 이해하는 방식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논의한다. 서구근대사회에서 사회학자들이 표현주의적 개인주의(expressive individualism)라 부르는 견해가 받아들여지게 되었는데, 표현주의적 개인주의는 ‘우리의 정체성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며, 가족 및 우리가 속한 여러 공동체에 그 근간을 두고 있다’는 전통적 이해방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표현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는, “개개인의 개성적 특성 혹은 정체성이 실현되게 하려면, 각 개인에게 ‘펼쳐지고 표현되어야 할’ 독특한 중심적 감정 및 직관이 있다는 인식이 필요하다”³¹고 이해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정체성은 그가 한 자율적 인간으로서 창조해내며 스스로 형성하는 것이 된다. 오늘날 캐나다의 그리스도인들도 정체성을 표현주의적 개인주의의 관점에서 이해하는 방식에 영향을 받은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우리의 기본적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사실이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잊어서는 안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며 이를 삶으로 구현하려는 이들에게는, 성적 특성에 대한 한 개인의 중심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 그의 정체성의 우선적 요소가 될 필요가 없는 것이다.

1995 년, 영국 성공회에 속한 일군의 신학자들이 성 안드레의 날 성명서(the St. Andrew's Day Statement)라 불리는 문서를 작성하여 발표하였는데, 이는 인간의 정체성을 개인의 성적 정체성 및 표현주의적 개인주의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에 응답하며, 보다 깊고 신실한 관점에서 서술한 명료한 신학적 성명서이다. 이 성명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증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그분 안에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인간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알 수 있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거짓없이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실재를 떠나서, 인간의 보편적 실재 또한 인간의 개개인의 특수한 실재를 논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구속된 인간성을 도외시한 채,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거를 세우려는 시도에 대해 경계해야 합니다. 자신을 동성애자라 여기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 모두가 동일하게 ‘개인 및 가족사, 감정적 기질, 사회전반적 환경, 사회 내 공통적 경험 및 목표에 의해 이루어지는 연대적 관계 등’에 의해 자신의 정체성에 대하여 오도된 이해를 갖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속한 사회적 계층, 인종적 분류 혹은 국적등에 비해 우리에게 있는 성적 애착이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의하는데 있어 더 중요한 요인이 된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가장 깊은 존재적 차원에서 본다면 한 개인으로서의 동성애자 또는 한 개인으로서의 이성애자라는 구분은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구속된 인간이 되도록 부름 받으며, 복합적이며 다양한 감정적 심원(心源) 또한 그만큼 복합적이며 다양한 소외의 형태에 위협을 받는, 남성과 여성인 사람들만이 있을 뿐입니다.

일상 생활적 용어로 동일한 내용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2017 년 2 월 샘 알베리(Sam Allberry)가 전하였던 연설의 내용을 보고자 한다. 샘은 영국성공회 교회의 목회자인데, 자신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 소개한다. 런던에서 열린 총 대회 모임(the General Synod in London)에서 대회원들에게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가 저를 – 동성애자가 아니라 –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이라 소개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게 있는 성적 특성은 제 정체성을 형성하는 요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제게 복된 기쁨의 소식이 됩니다. 제가 인간으로서 누리는 삶의 가치와 그 충족은 다른

누군과의 연애 관계나 성적인 방법으로 충족되는데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삶이 자유롭게 되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 중에 가장 깊이 인간적이며 가장 온전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결혼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애를 하시지도 않았고 누군가와 성관계를 갖지도 않으셨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인간으로서의 충만한 삶을 사는데 본질적인 요소라 한다면, 우리의 구세주가 진정한 인간의 기준에 미달한 분이었다고 여기는 것이 되어 버립니다.”³²

정체성에 대한 논의를 여기 포함시킨 이유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와 같은 설명이 정체성과 관련된 여러 주요내용을 포괄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단지 앞서 논의했던 성경적 가르침에 대해 상고해 볼때, 이러한 정체성에 대한 토의는 인간의 정체성과 인간의 성, 또한 이 양자 사이의 관계에 관련된 중요한 논의의 한 부분을 이루기 때문이다. 표현주의적 자유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서구근대사회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 이러한 정황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며, 의미를 창출하고,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방식’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D. 목회돌봄사역

목회돌봄사역을 위하여 교회공동체가 사람들보다 정치적 고려를 먼저 하게 된다 해도 이에 대해 죄책감을 갖지 않기를 바란다. 현재, 정치세력화가 대단히 활발하게 일어나는 사회문화적 정황 가운데 있는 관계로, 교회가 동성애에 대한 문화적 합의사항을 지지해 주어야 한다는 압박감을 받게 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최소한 이 사안에 대하여 침묵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을 받는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에 영원한 지혜의 길이 있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한다. 성경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해하는 통찰력을 갖게 한다.

우리는 증오와 동성애 혐오증의 추악함에 맞서는 동시에, 또한 인간의 성에 대해 교회공동체가 통시적으로 가르쳤던 바를 각 개인이 경시할 때 나타나는 추악한 문제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살펴 보아야 한다. 성경을 의심하며, 성에 대한 교회의 가르침을 사려깊지 못한 단순한 것이라 판단하고 경멸하는 것을 자주 보게 되는데, 우리는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해야 한다. “어디에서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지 다른 결인들에게 알려 주는 결인과 같이 겸허한 심정으로” (산 믿음 9.21)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제시된 지혜를 나누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여러 물음을 묻고 있는 청소년들을 대할 때 특히 중요하다. 그러한 청소년들에게서 언젠가 이러한 말을 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같은 교회의 가족이었고, 목사님이셨고, 가까운 친구이셨는데 왜 제가 들을 필요가 있는 이야기들을 다 들려 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생명의 소망과 진리를 이해하도록 저를 도와 주신 적이 없었어요.”

또한 우리 사회의 문화에는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 매력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예를 들어 영화·방송등의 산업에서, 제품이나 새로운 아이디어가 판매되는 시장에서, 성 행위, 성적 취향, 문란한 성관계 등과 같은 주제가 셀수 없이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문화 내에 성 윤리의 붕괴가 만연해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결혼과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건강하고 겸손하면서도 자신감 있는 지혜’를 바탕으로 이러한 현상에 대응하는 것은 교회에게 주어진 책무중 하나이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이 글을 시작하며 제시하였던 논점을 되새기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 ‘예배하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적 견해를 밝히고자 한다: 사람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는 목적 하에 창조되었으며, 성령님의 능력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알게 되어 이에 참여하며 그 길을 따를 때 하나님의 뜻은 가장 온전히 이해되며 실현된다.

하나님의 형상

성경을 통해 계시되는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 하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다는 것이다. 앞서 밝힌 것처럼, 창세기의 첫부분에서는 여러가지 방식으로 기원(origins)에 관한 이야기를 보여 주는데 이러한 이야기들은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과 목적을 알게 한다. 창세기 1:27 은 다음과 같이 말씀한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러한 메세지는 다른 종교 전통에서 흔히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통찰을 근거로,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창조자와 구세주의 형상을 간직하고 드러내는 존재로서의 존엄성과 존중을 부여 받게 된다. 이 점은 동성에게 성적 매력을 느끼는 사람들에게도 전혀 다름 없이 사실이다. 모든 이들은 소중하며, 존중 받을 가치가 있다.

돌보는 공동체, 제자도 및 예배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여 그를 따르기 위해 지음 받았다. 이러한 목적은 우리 각자의 삶에서 개인적으로 이루어 질 뿐 아니라, 서로의 이름을 알고, 함께 기도하며 도움과 격려를 나누는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진다. 우리의 개혁 장로교회 전통에서는, 믿음의 여정은 홀로 걷는 길이면서도 또한 동시에 다른 이들과 함께 가는 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중요한 의제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다 해도, 함께 어울려 나눌 수 있는 것들을 과소평가 하여 소중히 여기지 않을 때, 우리는 공동체로 살아가는 삶을 구현해 낼 수 없다. 또한 다른 이들이 우리와 같지 않다는 점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사랑이 있는 진정한 공동체를 형성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우리 스스로 저해하는 것이다. 예일 대학교의 교수인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는 이러한 경향은 배타적 태도의 표현이라고 진단한다. 어떻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할 수 있을까?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사랑을 온전히 배우며 그 사랑을 힘입는 것이다. “십자가에 못박힌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현존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자신의 원수를 흉악한 비인간적 존재로만 바라보는 것에 그치지 않고, 원수도 나 자신에게 있는 인간성을 공유하는 존재로 여기게 된다. 또한 자신의 도덕적 우월성을 내세우려는 마음을 내려 놓고, 원수와 나 자신 모두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직시하게 된다.”³³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일 때, 무너진 존재인 우리를 위한 구원자가 필요함을 알게 된다. 십자가 아래 함께 모일 때, 우리에게 공통되는 것, 우리를 다르게 하는 것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게 되며,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의 여정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기도와 도움을 서로 나누게 된다.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며 삶으로 살아내기 위해 주님이 임재하신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일 때, 이러한 제자도는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앞서 말하였던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은 새로운 정보(information)의 공급에 있지 않다. 기독교는 우리에게 새로운

변화(transformation)를 일으키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서로에 대해 책임감을 갖는 자세가 필요하다. 사도행전 24:14 에서 사도바울은 자신이 ‘도(道)를 따르는 사람’이라 말한다. 이 도는 거룩함과 사랑 중 하나를, 혹은 진리와 자비 가운데 하나를 택하는 것이 아니다. 순종하는 걸음 위에는 자라나는 통합, 흔들리면서도 조금씩 전진해 나가는 조화로움이 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28-34 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글에서 ‘첫째되는 계명 즉 하나님과 이웃을 힘을 다해 사랑하라는 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은 단순히 어떠한 감정이나 정서를 뜻하지 않고, ‘충성된 마음으로 타인의 유익을 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길에 충성된 사람이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란 (a) 내 이웃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으므로 그를 소중히 여기며, (b) 나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내 이웃이 나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을 알고 있으므로 (c)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삶을 이웃이 누리게 되도록 힘쓰는 사람이다. 성경에 근거하고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통해 재확증된 첫째되는 계명은 ‘진리는 한 사람이 믿고 있는 바뿐 아니라 그가 삶에서 행하는 바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함축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기를 바란다.

결론적으로, 우리 자신의 위선을 고백하며, 증오와 동성애 혐오증에 맞서면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증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나누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아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한다. 또한 기도하며 서로를 위한 도움을 나누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고자 할 때, 우리 모두 우리의 시선을 늘 우리의 구주시며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수 있기를 바란다. 요한복음 1:14 은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신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알게 한다. 이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오는 위안을 받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를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한 본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한다.

우리는 다른 무엇보다 예배자로서 은혜와 진리 안에 살아간다.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미주(Endnotes)

¹ 윌리엄 웹(William J. Webb), *노예와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문화적 분석의 해석학에 대한 탐구(Slaves, Women & Homosexuals: Exploring the Hermeneutics of Cultural Analysis)*, (Downer's Grove: IVP, 2001), p. 62.

² 아툴 가완디(Atul Gawande), *인간으로 살기: 의학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중요한 것(Being Mortal: Medicine and What Matters in the End)*, (Doubleday Canada, 2014), p. 122, 123.

³ 루크 티모디 존슨(Luke Timothy Johnson), *살아 계신 예수(Living Jesus)* (San Francisco: HarperSanFrancisco, 1999), p. 4.

⁴ 해당되는 예로는 사도행전 2 장 및 고린도전서 12 장 참조 (for example, see Acts 2 and 1 Corinthians 12)

⁵ “가장 우선되는 것들”이라는 잡지의 편집장인 매튜 슈미츠와의 대답에서 인용한 말이다. 해당 인터뷰는 firstthings.com/blogs/firstthoughts/2014/06/n-t-wrights-argument-against-same-sex-marriage 에서 들을 수 있다. (As quoted in an interview with Matthew Schmitz in *First Things* on June 11, 2014. The interview can be accessed at firstthings.com/blogs/firstthoughts/2014/06/n-t-wrights-argument-against-same-sex-marriage)

⁶ 엔 티 라이트(N.T. Wright), *마지막 말씀(The Last Word)* (New York, NY: HarperCollins, 2005), p. 37ff.

⁷ 티 에프 토렌스의 저서 칼빈의 인간론 참조 (See *Calvin's Doctrine of Man* by T.F. Torrance)

⁸ “삶의 성적인 면에 있어, 남성과 여성은 반각적이거나 아직 미완성인 상태로 하나님의 형상과 그 유사성을 드러낸다. 성적인 행위와 관련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남성과 여성 모두 각기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진실성 및 통합성을 지닐 수 있다. 그러나 성적인 행위와 관련해서는, 남성과 여성은 각자 양 면으로 구성된 성적 전체성의 한 부분일 뿐이므로, 자신의 성적 특성을 가지고서 상대방과 관계를 맺는다. 이러한 특수성을 무시하는 것은 인간의 성에 새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로버트 개그논의 소논문 “성경은 동성 간의 성관계를 본질적 죄로 여기는가?” 참조. 해당 소논문은 robgagnon.net/articles/ChristianSexualityArticle2003.pdf 에서 볼 수 있음.

(“In the sexual dimension of life humans are ‘angled’ or ‘faceted’ expressions of the image and likeness of God, ‘male and female’. They have integrity or wholeness as God’s image, independent of sexual activity. Yet, when they engage in sexual activity, they engage another in their particularity, as only one incomplete part of a two-faceted sexual whole. Ignoring this particularity effaces that part of the divine image stamped on human sexuality.”) See Robert Gagnon’s article “Does the Bible Regard Same-Sex Intercourse as Intrinsically Sinful?” at robgagnon.net/articles/ChristianSexualityArticle2003.pdf.

⁹ 장로교의 신앙 고백서들중 다음 항목에 대한 참조 요망. “산 믿음”: 인간 실존의 신비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았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2.2.1) 우리는 서로 돕는

베필이 되도록 남자와 여자로 지음 받았습니다. 우리가 성적인 존재로 창조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품으신 사랑의 뜻입니다. 남자와 여자로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2.2.2)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며 우리 삶의 의미를 실현하며 우리의 소명을 발견하도록 우리는 부름받습니다. (2.3.1) “산 믿음”의 이 부분에서. 창조와 관련된 ‘형상’과 ‘상호성’과 ‘소명’의 세 개념이 함께 모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See the following sections of one of our subordinate standards, Living Faith: The mystery of human existence is that we belong to God and have been made in the divine image. (2.2.1) We have been made male and female for our mutual help, comfort and joy. Our creation as sexual beings is God’s loving purpose for us. We are dependent on each other and as men and women, need one another in all of life. (2.2.2) We are called to work out the meaning of our own lives and to find our true vocation in the love and service of God. (2.3.1) Living Faith here draws together the three concepts of creation in the image, mutuality and vocation.)

¹⁰ 목회자이자 저술가인 팀 켈러가 결혼에 대한 이 세 가지 강조점을 Google 임원 대상 2011 년 강연회에서 부각시킨다.

(These three emphases in marriage are highlighted by pastor and author Tim Keller in his talk to Google executives in 2011.) youtube.com/watch?v=06y5Ub9oamE.

¹¹ “*musterion*”은 에베소서 5 장 32 절에 사용된 헬라어이며 성 제롬이 “*sacramentum*”라는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이다. (“*musterion*” is the Greek word used at Ephesians 5:32, the one St. Jerome translated into Latin as “*sacramentum*.”)

¹² 데릭 베일리(Derrick Bailey), *동성애와 서구기독교전통(Homosexuality and the Western Christian Tradition)*, (Shoe String Press, 1986); 존 보스웰(John Boswell), *기독교와 사회적 관용 그리고 동성애: 기독교 발생초기에서 14 세기까지의 서부유럽지역 동성애자들에 대한 고찰 (Christianity, Social Tolerance, and Homosexuality: Gay People in Western Europe from the Beginning of the Christian Era to the Fourteenth Centur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0).

¹³ 또 다른 예는 베드로후서 2:8-10 이다.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 당하는 의로운 뜻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이를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궁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The other is 2 Peter 2:8–10 “...if [God] rescued Lot, a righteous man greatly distressed by the licentiousness of the lawless...then the Lord knows how to rescue the godly from trial, and to keep the unrighteous under punishment until the day of judgement – especially those who indulge their flesh in depraved lust, and who despise authority.”)

¹⁴ 납달리의 증언서(The Testament of Naphtali), 벤자민과 희년 증언서(The Testament of Benjamin and Jubilees) 등

¹⁵ 우리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온전히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 사도바울은 로마서, 에베소서, 또한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명확히 강조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을 때만 가능하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새로운 삶의 특성을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할 때, 그가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것인지,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힘입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제기된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 말하면서 어둠의 일을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가르친다. (We do not get into the kingdom on the basis of good behaviour or performing perfectly the works of the law. Paul’s writings in Romans, Ephesians and Galatians are clear concerning that point. We get into the kingdom on the basis of God’s grace alone in Christ alone, received by faith alone. Yet if a person is not living well, it calls into question the degree to which they have really been reborn in Christ, and renovated by the Holy Spirit. For the New Testament, one cannot claim to belong to Christ and do the works of darkness.)

¹⁶ 신약 성경 및 초기 기독교 문헌이해를 위한 헬라어-영어 사전, 개정 3 판, 프레드릭 윌리엄 댕커 편집, 월터 바우어 사전 참조 (*A Greek-English lexicon of the New Testament and other Early Christian literature*, third ed. rev. and ed. Frederick William Danker, based on Walter Bauer’s lexic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0)

¹⁷ 웨슬리 힐은 믿기 전과 믿기후 또한 동성애 회복치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youtube.com/watch?v=W_xBMyWR8B8](https://www.youtube.com/watch?v=W_xBMyWR8B8) 에서 그의 말을 들을 수 있는데, 그의 이야기는 9.07 분 경에 시작된다. ‘믿기 전과 후’라는 서사구조의 문제점과 동성애 회복치료에 대해서 그가 말하는 것은 20.38-23.45 경에 들을 수 있다. (Wesley Hill talks about before and after, and reparative therapy. The link to the clip is. He starts telling his story at the 9.07 minute mark and he gets to the consideration of the “before and after” narrative and offers comments on reparative therapy from approximately 20.38–23.45)

¹⁸ 로세리아 버터필드가 동성애 회복치료 및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갖게 하시는 변화에 대하여 말한 것은 로세리아 버터필드의 남 플로리다 대학 강연의 한 부분을 보여 주는 영상자료에서 들을 수 있다. (Rosaria Butterfield’s comments concerning reparative therapy and the kind of change God brings about in people are from a clip of her speaking to the University of South Florida) [youtube.com/watch?v=BBwv7TxQ4v0&t=958s](https://www.youtube.com/watch?v=BBwv7TxQ4v0&t=958s)

¹⁹ 진리 탐구 토론회에서 팀 켈러가 데이빗 아이센바흐와 대담하였던 내용의 일부분 (Tim Keller talking to David Eisenbach in the Veritas Forum) “Is it a sin? Are they going to hell?” [youtube.com/watch?v=IZFCB9sduxQ](https://www.youtube.com/watch?v=IZFCB9sduxQ)

²⁰ 윌리엄 로더 (William Loader), *신약성경의 성: 주요본문에 대한 연구 (Sexuality in the New Testament: Understanding the Key Texts)*, (Westminster John Knox, Louisville, 2010), p. 23.

²¹ 윌리엄 로더의 저서 *성 이해하기: 초기 유대교 및 기독교 문헌에서의 성에 대한 접근방식에서* 도움이 되는 설문 조사 자료를 볼 수 있다. 특히 이 저서의 “걱정 및 인간”이라는 제목의 장(章)

참조요망. (A helpful survey is by William Loader in his book *Making Sense of Sex: Attitudes towards Sexuality in Early Jewish and Christian Literature*. (Eerdmans, 2013) See especially the chapter “Passions and Persons”)

²² 보스웰, *기독교와 사회적 관용, 그리고 동성애*, 1980.

²³ 웹, *노예와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p. 233.

²⁴ 레위기 11 장 참조 (See Leviticus 11)

²⁵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빌립보서 3:7-8) “Yet whatever gains I had, these I have come to regard as loss because of Christ. More than that, I regard everything as loss because of the surpassing value of knowing Christ Jesus my Lord. For his sake I have suffered the loss of all things, and I regard them as rubbish, in order that I may gain Christ...” (Philippians 3:7-8)

²⁶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결혼하라 정욕이 불 같이 타는 것보다 결혼하는 것이 나으니라” (고린도전서 7:7-9) “I wish that all were as I myself am. But each has a particular gift from God, one having one kind and another a different kind. To the unmarried and the widows I say that it is well for them to remain unmarried as I am. But if they are not practicing self-control, they should marry. For it is better to marry than to be aflame with passion.” (1 Corinthians 7:7-9)

²⁷ 이는 *하나님과 동성애자 그리스도인(God and the Gay Christian)*이라는 저서에서 볼 수 있는 매튜 바인스의 주장이다. (This is one of the arguments of Matthew Vines in *God and the Gay Christian*. (Doubleday, 2014))

²⁸ 웹, *노예와 여성, 그리고 동성애자*, p. 252.

²⁹ ivestream.com/calvin-college/events/4678265/videos/120915882 의 자료 참조

³⁰ “오늘의 기독교 (*Christianity Today*)”잡지에서 에드 스테저와 2012 년 진행한 대담중 한 부분 (This is from a *Christianity Today* interview with Ed Stetzer in March, 2012) christianitytoday.com/edstetzer/

[2012/march/rick-warren-interview-on-muslims-evangelism-missions.html](http://christianitytoday.com/edstetzer/2012/march/rick-warren-interview-on-muslims-evangelism-missions.html)

³¹ 로버트 벨라(Robert Bellah et al.), *마음의 습관: 개인주의 그리고 미국인의 삶에 대한 논평 (Habits of the Heart: Individualism and Commitment in American Life)*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2008), p. 333-334.

³² 샘 알베리의 말을 청취할 수 있는 영상자료 (Sam Allberry’s comments can be watched at) youtube.com/watch?v=mCLms7J84JY

³³ 미로슬라브 볼프(Miroslav Volf), *배타와 포용: 정체성과 타자성 그리고 화해에 대한 신학적 탐구* (*Exclusion and Embrace: A Theological Exploration of Identity, Otherness, and Reconciliation*), (Abingdon, Nashville: 1996), p. 124.